

통합치료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통합치료학회

한국통합치료학회 임원진

회 장 : 홍혜영(명지대학교)

부 회 장 : 문소영(명지대학교)

총 무 : 정은정(명지대학교)

편 집 위 원 회 : 선우현(명지대학교) 노남숙(명지대학교) 최예린(명지대학교)
손보영(선문대학교) 이상진(평택대학교) 박정환(제주대학교)
박춘성(상지영서대학교) 서근원(대구카톨릭대학교) 이아라(경상대학교)
임지숙(명지대학교)

국제교류위원회 : 심혜원(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서미진(호주기독교대학교)

윤 리 위 원 회 : 조민자(명지대학교) 이상은(명지대학교) 윤정숙(이화여자대학교)

홍 보 위 원 회 : 이은경(명지대학교) 최정현(서울문화예술대학교)

학 술 위 원 회 : 김은연(명지대학교) 강순미(백석예술대학교)

학제 간 연구위원회 : 최광현(한세대학교) 최명선(명지대학교) 양심영(송의여자대학교)

간 사 : 정혜전 박소희 남승지

감 사 : 한영주(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박은선(명지대학교)

〈차 례〉

- 기혼 직장여성의 직무스트레스와 마음챙김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자기조절의 조절된 매개효과 -
송금란·정은정 5
- 초심 수퍼바이저의 역전이 대처
김명화·홍혜영 35
- HIV 감염인의 사회적 낙인이 자기낙인과 내면화된 수치심을 매개하여 자살
사고에 미치는 영향
권경애·홍혜영 69

<별첨 1> 통합치료연구 연구 윤리 관련 규정 / 99

<별첨 2> 투고규정 / 102

<별첨 3> 논문 작성 요령 / 104

<별첨 4> 한국통합치료학회 회칙 / 111

기혼 직장여성의 직무스트레스와 마음챙김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자기조절의 조절된 매개효과 -

송금란* · 정은정**

한양아이소리 심리상담센터 인천점 · 명지대학교

본 연구는 기혼 직장여성의 직무스트레스 및 마음챙김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조절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자기조절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마음챙김과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때 적응적인 자기조절을 사용하는 것이 심리적 안녕감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기혼직장 여성 30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통계분석에는 SPSS 23.0과 Hayes(2013)가 제안한 SPSS Macro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 관계에서 마음챙김은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과 마음챙김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마음챙김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때, 자기조절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마음챙김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조절의 조절효과는 증가하였다. 셋째, 직무스트레스가 마음챙김을 통해서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자기조절에 의해 조절되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즉 직무스트레스가 마음챙김을 통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때 자기조절의 수준에 따라 매개효과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한점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다.

주제어 : 기혼 직장여성, 직무스트레스, 마음 챙김, 심리적 안녕감, 자기조절, 조절된 매개효과

* 본 연구는 송금란(2017)의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및 요약한 논문임.

** 교신저자: 정은정(914janet@hanmail.net)

■ 게재 신청일 : 2019년 7월 29일 ■ 최종 수정일 : 2019년 8월 24일 ■ 게재 확정일 : 2019년 8월 25일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의식 고양, 그리고 경제활동 필요성의 증가로 인하여 많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하정희, 강병재, 2000).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하반기 맞벌이가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맞벌이가구는 전체 유배우 가구 중 43.9%를 차지했다. 이처럼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고 맞벌이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기혼 여성은 다중역할 책임이라는 부담을 안고 직장생활에 임하고 있다(곽현주, 최은영, 2014). 특히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은 직장인 기혼 여성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노성숙, 한영주, 유성경, 2012; 양은주, 2005). 2017년 중앙육아 종합지원 센터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의하면 맞벌이 가정의 남성 가사노동시간은 하루 58분인 반면, 여성은 하루 3시간 27분으로 3.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가사노동의 부담이 여전히 여성들의 몫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도 양육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는데 자녀양육을 부모 공동의 책임과 역할로 인식하기보다는 여성의 책임으로만 보는 경향이 많아 부부관계의 갈등과 스트레스가 더 심화되고 있다(김경희, 이복순, 2009; 이철인, 2010). 특히 여성은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심리적, 경제적인 부담, 개인시간의 부족과 육체적인 피로와 장래에 대한 불안과 죄책감 등과 같은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한다(이지원, 2003).

한편, 직장에서 겪는 기혼여성들의 어려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과도한 직무 요구는 많지만 통제권은 적은 일, 지적 능력의 요구가 적은 기계적이고 단조로운 일 등이 개인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이동수, 1999). 그리고 예기치 않는 출장, 예고되지 않은 잔업, 긴 출퇴근 시간과 노동시장에서 받는 성 차별은 채용, 배치, 승진, 임금, 그리고 성 희롱 등과 관련된 어려움이 많은 연구들에서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공미혜, 1995; 김경신, 김정란, 1999; 김양희, 1999; 이성희, 이승미, 2001; 장혜경, 1997).

이와 같은 직무 스트레스는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첫째, 개인적인 측면에서 적절히 해소하지 못할 경우, 주요 양육자의 스트레스가 아동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부부간 불화나 이혼 등 결혼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기혼직장 여성의 이중 부담 속에서 경험하는 역할갈등, 스트레스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기업의 측면에서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Niosh(2012) 미국노동부 산하의 국립직업안전 및 건강연구소 “The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의 보고서에 의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조직 구성원들은 그렇지 않은 구성원보다 50% 이상의 의료비용을 더 지출하고, 40%의 근로자는 매우 극심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생활 속의 스트레스보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건강에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믿고 있다. 셋째, 사회적으로 무엇보다 유능한 여성노동력 상실을 초래한다. 기혼여성의 20.7%가 임신, 출산, 육아 등 양육의 문제로 경력단절을 경험한다(통계청, 2015). 이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비용 부담이 됨을 시사한다. 넷째, 국가적으로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으로 혼인, 출산을 기피하여 만혼이나 저 출산 문제 같은 부정적 문제를 초래한다. 이는 오늘날 한국 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혼 여성들의 일-가정의 스트레스로부터 대처방안을 연구하여 그들을 이해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차윤정, 2001).

또한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는 개인의 신체 건강뿐 아니라 심리적 안녕감을 해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김성희, 2014; 박성필, 2005; 신현정, 박진성, 2010). 방송인을 대상으로 한 유정희(2010)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 하위 6요인 모두 부적영향임이 나타났다. 강한모(2016)에서 긍정적인 태도나 자신의 장점, 단점까지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자기수용이 스트레스 자각수준에 영향이 있다는 것으로 보아 기혼 직장 여성의 심리적 안녕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심리적 안녕감이란 전반적인 삶에 대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주관적 안녕감뿐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심리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역경을 회복할 수 있는 원천이며 긍정적 기준과 개인적인 강점, 정신 건강을 반영할 수 있는 삶의 만족 그 이상의 것이며(Reff, 1989), 한 개인이 느끼는 인생 전반 혹은 인생 전체에 대한 행복이나 만족정도를 의미한다(Andrews & Robinson, 1991).

최근 들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 검증되고 있다. 그 중에 ‘마음챙김(Mindfulness)’이 심리적 안녕감과 연관된 한 속성으로서 주목받고 있다(문정순, 2010). 마음챙김은 고정화된 지각으로부터 탈피하여, 매 사건을 처음으로 발생한 것처럼 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보는 것이며, 내적 경험에 대해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수용적으로 반응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Goleman, 1995). 마음챙김을 잘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진

행되고 있는 경험을 알아차리고 비판단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마음챙김을 잘할 때 심리적 안녕감의 수준도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들이 많이 있다(문정순, 한규석, 2012; 박혜민, 채규만, 2012; 배상윤, 박중규, 2011).

Lazarus와 Folkman(1984)은 스트레스를 환경이나 개인의 반응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개인의 지각으로 정의하였다. 그들은 인간은 각종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지만 결국 자신의 평가와 인식에 따라 그 강도는 달라질 수 있으며, 대처자원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스트레스 상황을 보다 긍정적으로 맞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의 상황에서 마음 챙김의 효과적인 치유기제로써 탈 중심화를 들 수 있다. 탈 중심화는 자신의 경험을 거리를 두고 관찰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일어나는 현실적인 경험과 자신이 해석한 경험과의 차이를 앎으로써 자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험이라는 것을 자신이 인식 할 수 있다(Safran & Segal, 1990). Kabat-Zinn(2003)은 마음챙김이 순간순간의 상황에서 주관적 판단과 차별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현재의 경험을 좀 더 명확하고 생생하게 체험하게 하는 역할을 하므로,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특징으로 최근 마음 챙김은 치료 변수인 동시에 훈련을 통해 개발 가능한 심리 변수 태도로 받아들여져(심지은, 2008) 교육과 산업장면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직무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을 바로 봄으로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김정호, 2001)고 생각되어 마음챙김을 매개변인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마음챙김의 어떤 기제 원리가 높은 직무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심리적으로 안녕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Peterson과 Seligman(2009)은 인간의 긍정적 특질의 분류체계를 개발하는데 노력을 기울였고, 6개의 덕성 아래 24개의 성격강점으로 구성된 VIA분류체계(Values In Action Classification of strengths)를 개발하였다. 이 중 심리적 요인 중 하나가 ‘자기조절’이다. 자기조절은 보다 크고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순간의 요구나 행동을 자제하고, 즐거움과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을 의미한다(Shaffer, 1993). 자기조절은 스스로 통제하는 내적 통제인 우울, 불안 등을 감소시키는 등 심리적 문제에 더욱 영향을 주고(최운정, 이시연, 2007), 자기조절 능력이 개인 자신을 인지적, 동기적, 행동적으로 조절하게 되면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긍정적인 자기상을 가지게 된다(김규리, 2012). 자기조절은 목표를 달성하거나 기준에 따라 행동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의 반응을 조절하고자 노력하는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러한 반응은 생각, 정서,

충동, 수행, 그리고 기타 행동을 포함한다(Peterson & Seligman, 2009). 따라서 일상생활을 통한 자기조절 기능의 유지는 개인의 신체적 건강과 삶의 질을 포함하는 심리적 안녕감에도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마음 챙김과 자기조절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다. 마음 챙김을 통해서 초인지적 기능이 활성화되면, 자신이 경험하는 사고, 정서, 행동 및 동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한 걸음 떨어져 관조할 수 있는 여유나 힘이 생기고, 이는 자기조절의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고 한다(김교현, 2008). 또한 마음 챙김의 주의집중과 현재 자각의 속성은 자기의 감정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감하게 하여 타인과 상황에 맞는 행동으로 자기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게 됨을 볼 수 있다(심지은, 윤호균, 2008). 조용래(2012)는 마음챙김에 기반을 둔 정서조절 개입이 일반대학생들의 우울증상, 전반적인 부적 정서, 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정서조절곤란을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하여서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박혜민(2012)의 연구에 의하면 마음챙김이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서조절방략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는 마음챙김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적응적 정서조절 방략을 많이 사용하여 결국 개인이 지각하는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송정덕(2015)의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성, 지혜, 자기조절의 조절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앞서 확인하였듯 마음챙김이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는 요인임을 알 수 있고, 자기조절 또한 심리적 안녕감 높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자기조절은 자기조절이 낮을 때 보다 높을 때 마음챙김이 심리적 안녕감에 더욱 많은 영향을 미치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연구대상에 있어서는 워킹 맘들을 위주로 선정하였다. 여성가족부의 후원으로 2013년 9월 전국 30~40세 기혼 직장여성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발표된 워킹맘 고통지수(여성신문, 2013)는 73.1%인 것으로 나타났다. 워킹 맘들은 일과 가사-자녀 양육 등을 거의 전담하느라 절대적인 시간 부족과 피로, 소진 등 체력적인 어려움과 긴장, 몰입저해, 전업 주부와의 비교를 통한 죄책감, 홀로 분투하는 데서 오는 외로움 등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내적인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원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정, 2012; 노성숙 외, 2012).

기존의 기혼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대부분 가정-직장간의 갈등을 다룬 것과 전체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 직장만 다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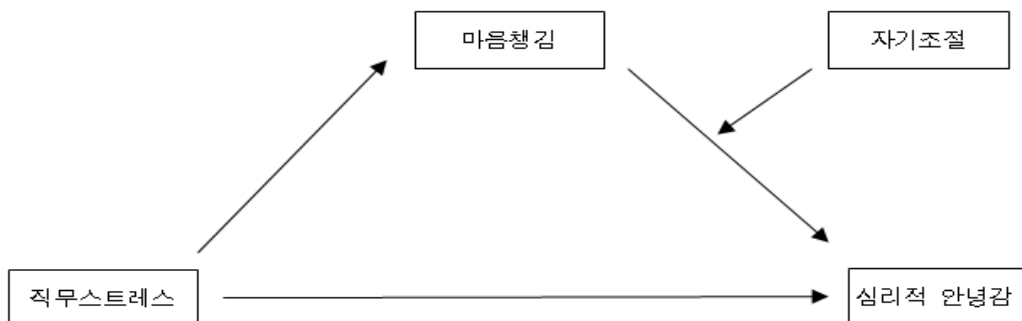
여성과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일을 함께 도맡아 하는 여성의 정신건강 상태는 다르므로 이 대상을 나누어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으며,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워킹맘의 삶의 만족을 위해 다방면의 도움이 필요한 실정이다(차윤정, 2001).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 시간 부족과 다양한 역할수행에 시달리고 있는 워킹맘의 심리적 안녕감을 효율적으로 다루어 줄 방안을 찾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기혼 직장여성을 대상, 그 중에서 자녀가 있는 직장여성으로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즉각적인 정서반응을 감소시키고 인지 평가를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마음챙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 환경과 욕구의 실정에 맞는 목표로 조절하여 자율적으로 행동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기조절이 마음챙김과 상호작용하여 심리적 안녕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볼 것이다.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결합하여 직무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마음챙김과 자기조절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및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직무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마음 챙김, 자기조절 간의 관계는 어떤가?
- 연구문제 2.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마음챙김이 매개하는가?
- 연구문제 3. 마음챙김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자기조절이 조절하는가?
- 연구문제 4. 직무스트레스가 마음챙김을 통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조절이 조절하는가?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직무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마음 챙김, 자기조절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서울, 경기도 소재한 자녀를 키우고 있는 기혼 직장 여성 대상으로 2017년 3월 5일부터 4월 15일 기간 동안 설문지 310부를 배부하였다. 이 중에 불성실 응답자 7부를 제외한 303부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 방법을 기초로 하여 국내외에서 발간된 학위·학술 논문을 종합하고 분석 하였으며, 정부관련 기관의 각종 통계자료, 연구보고서, 단행본 등을 분석하고 검토하여 정리하였다.

2. 측정 도구

가. 직무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직무스트레스 검사는 직장생활에서 느끼게 되는 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보는 척도로써 이종목과 박한기(1998)가 개발한 직무스트레스 척도와 Ivancevich와 Matteson(1980)의 척도를 바탕으로 김점순(2008)이 재구성한 직무스트레스 척도 19문항을 사용한다. 채점 체계는 5 Likert식 척도로써 “매우 그렇다” 5점, “대체로 그렇다” 4점, “그저 그렇다” 3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채점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표 1〉 직무 스트레스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내적합치도
업무적합성	6, 7, 8, 9, 10, 12, 13, 14	8	.78
업무수행환경	1, 2, 3, 4, 5, 11	6	.85
업무수행정도	15, 16, 17, 18, 19	5	.82
전체	1~23	19	.87

나. 심리적 안녕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심리적 안녕감의 척도는 Ryff(1995)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를 김명소, 김혜원 및 차경호(2001)가 한국판으로 번안한 것으로, 긍정적인 심리적 기능을 나타내는 6개 하위요인인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 통제력 삶의 목적 및 개인 성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46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표 2> 심리적 안녕감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내적합치도
자아수용	3,8,(12),19,24,(26),39,42	8	.78
긍정적 대인관계	(4),(9),13,(20),(27),38,(46)	7	.78
자율성	5,10,15,(21),29,(33),(36),43	8	.66
환경 통제력	1,(6),14,(16),25,30,(40),44	8	.63
삶의 목적	(7),(11),(18),(23),28,32,35	7	.67
개인 성장	(2),17,(22),31,(34),37,(41),(45)	8	.62
전 체	1~46	46	.90

주) ()는 역채점 문항임.

다. 마음 챙김

본 연구에서는 마음 챙김을 측정하기 위해 박성현(2006)이 개발한 척도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2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요인 당 5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4개의 요인은 탈중심주의, 비판단적 수용, 현재자각, 주의집중이다. 마음 챙김 척도는 모두 부정문으로 구성되어있고, 모든 문항은 Likert 5점 척도 (1=전혀 아니다, 5=상당히 그렇다)이다. 총 점수는 20~100이며 전체문항이 역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 채점 후 점수가 높을수록 마음 챙김 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표 3〉 마음 챙김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내적 합치도
주의집중	1, 5, 9, 13, 17	5	.77
비판단적 수용	2, 6, 10, 14, 18	5	.80
현재자각	3, 7, 11, 15, 19	5	.77
탈 중심주의	4, 8, 12, 16, 20	5	.81
전 체	1~20	20	.91

라. 자기 조절

본 연구에서 자기조절능력 척도는 Kuhl과 Fuhrmann(1998)이 개발한 의지구성검사 (Volition Component Inventory: VCL)를 근거로 윤영신(2007)이 번안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자기조절능력 척도는 자기조절(self-regulation)과 의지적 억제(volitional inhibition) 2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조절은 자기 발생적 목표와 행위에 대해 자기가 행위통제의 주체가 되며, 의지적 억제는 자기관련 생각과 느낌들이 현재의 의식적 의도를 약화시키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기를 억제하는, 즉 의도의 행위통제의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측정 방식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조절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표 4〉 자기조절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내적 합치도
자기조절	1, 2, 3, 4, 8, 12, 14, 15, 16, 18	10	.81
의지적 억제	(5), (6), (7), (9), (10), (11), (13), (17), (19), (20), (21)	11	.83
전 체	1~21	21	.84

주) ()는 역채점 문항임.

III. 분석 방법

1.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 설문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여 SPSS 23.0과 Macro 2.1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항내적합치도(Cronbach')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연구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와 정상성 검증을 위한 왜도와 첨도를 추정하였다.

넷째, 각 측정변인 간의 관계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매개변인들의 매개효과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적용하였고, 매개효과를 재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매개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관계를 조절변인이 조절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곱째,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결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 Macro를 이용한 조절된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치 분석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인인 직무스트레스, 마음 챙김, 자기조절능력, 심리적 안녕감의 일반적 경향성과 정규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첨도 및 왜도를 산출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측정변인의 왜도 범위는 -.30 ~.26, 첨도 범위는 -.33 ~1.52로 나타났다. 왜도, 첨도의 절댓값이 각각 기준치인 2와

7을 넘지 않으므로 정규 분포 가정이 충족됨을 알 수 있었다(Kline, 2005).

<표 5>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치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직무스트레스	2.80	.58	-.08	.33
업무적합성	2.74	.69	.00	-.03
업무수행환경	2.84	.74	.11	.05
업무수행정도	2.85	.79	-.17	.07
마음챙김	3.40	.58	-.27	-.33
주의집중	3.41	.69	-.30	-.23
비판단적 수용	3.42	.69	-.30	-.30
현재자각	3.57	.64	-.22	-.31
탈중심주의	3.22	.78	-.26	-.32
자기조절능력	3.22	.44	-.05	1.52
자기조절	3.24	.50	.08	-.15
의지적 억제	3.20	.58	-.13	.44
심리적안녕감	3.34	.38	.19	-.19
자아수용	3.31	.53	-.22	.01
긍정적 대인관계	3.40	.49	.04	-.25
자율성	3.09	.47	-.04	.26
환경 통제력	3.39	.44	.01	.17
삶의 목적	3.43	.53	.20	.01
개인성장	3.29	.49	.26	-.16

2. 주요 변인의 상관분석

주요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직무스트레스는 마음 챙김($r=-.28, p<.001$), 자기조절능력($r=-.31, p<.001$), 심리적 안녕감($r=-.30, p<.001$)과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마음 챙김, 자기조절능력, 심리적 안녕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음 챙김은 자기조절능력($r=.64, p<.001$)과 심리적 안녕감($r=.54, p<.001$)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마음 챙김이 높을수록 자기조절능력과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기조절능력은 심리적 안녕감($r=.55, p<.001$)

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조절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무스트레스, 마음챙김, 자기조절,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각 변인들의 하위요인 간의 상관계수 값들을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6> 주요 변인 간 상관분석 (N=303)

	직무 스트레스	마음챙김	자기조절 능력	심리적 안녕감
직무스트레스	1			
마음챙김	-.28***	1		
자기조절능력	-.31***	.64***	1	
심리적 안녕감	-.30***	.54***	.55***	1

*p <.05, **p <.01, ***p <.001

〈표 7〉 주요 변인 간 하위요인별 상관분석 (N=303)

	직무 스트레스	업무 직합성	업무수 행환경	업무 수행 정도	마음 챙김	주의 집중	비 판단적 수용	현재 자각	탈중심 주의	자기 조절 능력	자기 조절	의지적 억제	심리적 안녕감	자아 수용	공경적 대인 관계	자율성	환경 통제력	삶의 목적
직무스트레스	1																	
업무직합성	.78***	1																
업무수행환경	.81***	.38***	1															
업무수행정도	.77***	.33***	.60***	1														
마음챙김	-.28***	-.27***	-.22***	-.14*	1													
주의집중	-.18**	-.21***	-.16**	-.03	.82***	1												
비판단적수용	-.20**	-.21***	-.16**	-.08	.88***	.61***	1											
현재자각	-.20***	-.18**	-.16**	-.13*	.82***	.62***	.67***	1										
탈중심주의	-.32***	-.29***	-.25***	-.21***	.81***	.51***	.64***	.49***	1									
자기조절능력	-.31***	-.29***	-.23***	-.17**	.64***	.45***	.57***	.47***	.63***	1								
자기조절	-.20***	-.30***	-.09	-.04	.46***	.29***	.40***	.38***	.46***	.75***	1							
의지적 억제	-.28***	-.19**	-.26***	-.22***	.56***	.42***	.51***	.38***	.55***	.86***	.30***	1						
심리적 안녕감	-.30***	-.33***	-.16**	-.20**	.54***	.40***	.44***	.50***	.45***	.55***	.55***	.36***	1					
자아수용	-.24***	-.32***	-.08	-.14*	.39***	.25***	.34***	.31***	.38***	.44***	.50***	.23***	.82***	1				
공경적 대인관계	-.12*	-.08	-.12*	-.08	.46***	.29***	.38***	.45***	.43***	.38***	.33***	.29***	.64***	.42***	1			
자율성	-.13*	-.12*	-.07	-.10	.28***	.15**	.23***	.33***	.21***	.39***	.34***	.29***	.61***	.42***	.25***	1		
환경 통제력	-.35***	-.30***	-.23***	-.30***	.43***	.33***	.33***	.36***	.40***	.49***	.44***	.35***	.79***	.64***	.43***	.37***	1	
삶의 목적	-.20***	-.25***	-.07	-.13*	.38***	.35***	.29***	.37***	.26***	.36***	.41***	.20**	.81***	.61***	.41***	.36***	.60***	1
개인성장	-.18**	-.27***	-.06	-.06	.37***	.32***	.30***	.33***	.28***	.32***	.37***	.16**	.73***	.48***	.43***	.30***	.46***	.58***

*p < .05, **p < .01, ***p < .001

3. 기혼 직장여성의 직무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 관계 마음챙김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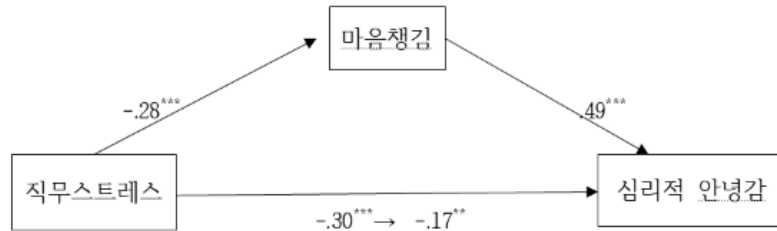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에 따라 3단계에 걸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유의하게 예측하는지를 검증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지를 검증하며,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지를 검증하고, 여기까지 단계의 검증이 모두 유의미하여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칠 때의 표준화 회귀계수가 두 번째 단계에서의 표준화 회귀계수보다 작게 나타나야 한다. 작아진 표준화 회귀계수가 유의미하지 않게 되면 완전매개(full mediating), 유의미한 수준을 유지하면 부분매개(partial mediating)가 성립된다고 본다.

직무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마음 챙김이 매개하는지를 검증한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직무 스트레스가 매개변인인 마음 챙김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고($\beta = -.28, p < .001$),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직무 스트레스가 종속변인인 심리적 안녕감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으며($\beta = -.30, p < .001$),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직무 스트레스($\beta = -.17, p = .001$)와 마음 챙김($\beta = .49, p < .001$)이 심리적 안녕감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두 번째 단계의 표준화 회귀계수가 $-.30$ 에서 $-.17$ 로 줄어들었으며 줄어든 회귀계수 값이 여전히 유의미하므로 마음 챙김은 직무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Sobel test를 이용하여 매개효과를 재검증한 결과, Z값이 $-4.44(p < .001)$ 로 나타나 임계치의 절대값인 1.96보다 크므로 매개효과가 유의미함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표 8>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마음 챙김의 매개효과

단계	변인	B	β	SE	R ²	F
1(독립->매개)	직무 스트레스->마음챙김	-.29	-.28***	.06	.08	24.72***
2(독립->종속)	직무 스트레스->심리적 안녕감	-.48	-.30***	.09	.09	30.54***
3(독립,매개 ->종속)	직무 스트레스->심리적 안녕감	-.27	-.17**	.08	.32	69.39***
	마음챙김->심리적 안녕감	.74	.49***	.07		

*** p<.001



〈그림 2〉 마음 챙김 매개모형

p<.01, *p<.001

4. 기혼 직장여성의 마음챙김과 심리적 안녕감 관계에서 자기조절의 조절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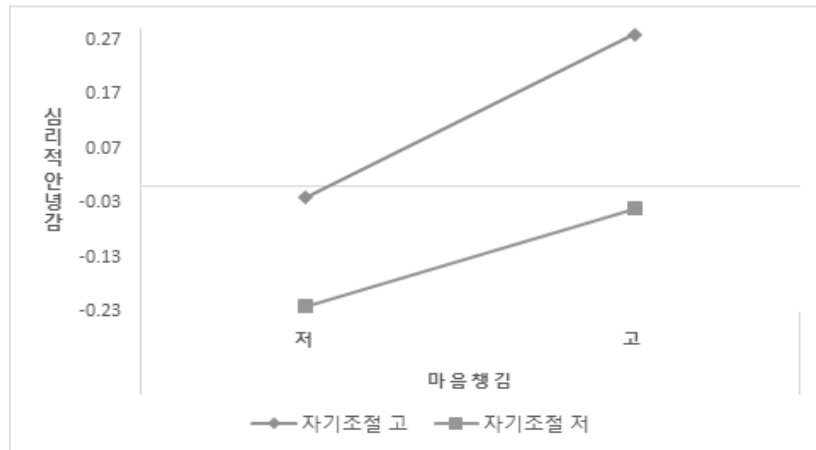
마음챙김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자기조절이 조절하는지를 살펴본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마음챙김은 심리적안녕감에 유의미한 주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투입한 상호작용항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조절효과가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음챙김과 자기조절만 투입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설명력이 36%였으며, 마음챙김($\beta=.32, p<.001$)과 자기조절($\beta=.34, p<.001$)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단계에서는 마음챙김과 자기조절의 상호작용항이 추가되었고, 이 때 상호작용항은 정적인 부호로 확인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조절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beta=.11, p=.017$). 즉 마음챙김 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마음챙김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자기조절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 마음챙김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의 조절효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F	R ²
심리적 안녕감	마음챙김(A)	.12	.02	.32	5.30***	84.35***	.36
	자기조절(B)	.13	.02	.34	5.71***		
	A	.12	.02	.33	5.49***	59.02***	.37
	B	.13	.02	.34	5.74***		
	A×B	.03	.01	.11	2.39*		

*p <.05, ***p <.001

자기조절의 조절효과가 나타내는 양상을 도식화하면 <그림 3>와 같다. 마음챙김이 증가할 때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진다. 이 때 자기조절이 낮은 경우에 비해 높은 경우가 마음챙김이 증가함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의 상승폭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마음챙김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자기조절을 ‘고, 저’ 수준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자기조절이 ‘고’ 일 때가 기울기가 가파르다. 자기조절이 ‘고’ 일 때는 마음챙김이 높아짐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자기조절 수준이 ‘저’ 일 때는 증가폭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자기조절이 높을수록 마음챙김이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효과가 강해지는 조절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마음챙김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의 조절효과

5. 기혼 직장여성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마음 챙김과 자기 조절의 조절된 매개 효과

직무스트레스가 자기조절을 거쳐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조절변인인 자기조절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확인하는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하였고, 분석 결과를 <표 10>과 <표 11>에 제시하였다.

먼저 <표 10>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매개변인 모형에서는 독립변인인 직무스트레스가 매개변인인 마음챙김을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17$,

p<.001). 종속변인 모형에서는 독립변인인 직무스트레스가 종속변인인 심리적 안녕감을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였으며(B=-.08, p=.025) 매개변인인 마음챙김과 조절변인인 자기조절의 상호작용항이 종속변인인 심리적 안녕감을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23, p=.040). 이 모형에서 매개변인인 마음챙김과 상호작용항이 의미하는 것은 매개변인인 마음챙김이 종속변인인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조절변인인 자기조절의 수준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한다. 매개와 종속변인 모형을 통한 조절된 매개효과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Preacher, Rucker, & Hayes, 2007).

$$f(\theta^{\wedge} / W) = a^{\wedge}1 + (b^{\wedge}1 + b^{\wedge}3W) = -.28(-.21 + .23 \times \text{자기조절})$$

위의 식에서 알 수 있듯, 자기조절이 클수록 조절된 매개효과의 크기가 부적으로 커짐을 알 수 있다. 즉 조절변인인 자기조절의 크기가 커질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마음챙김을 거쳐서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증가함을 의미한다.

<표 10>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마음챙김의 매개효과와 자기조절의 조절효과

독립변인	매개변인(마음챙김)				
	B	SE	t	LLCI	ULCI
직무 스트레스 (a ₁)	-.28	.06	-4.53***	-.40	-.16
독립변인	종속변인(심리적 안녕감)				
	B	SE	t	LLCI	ULCI
직무 스트레스	-.08	.03	-2.26*	-.15	-.01
마음챙김(A) (b ₁)	-.21	.19	-1.08	-.59	.17
자기조절(B)	-.16	.22	-.71	-.60	.28
A×B (b ₃)	.23	.03	2.06*	.17	.30

*p <.05, ***p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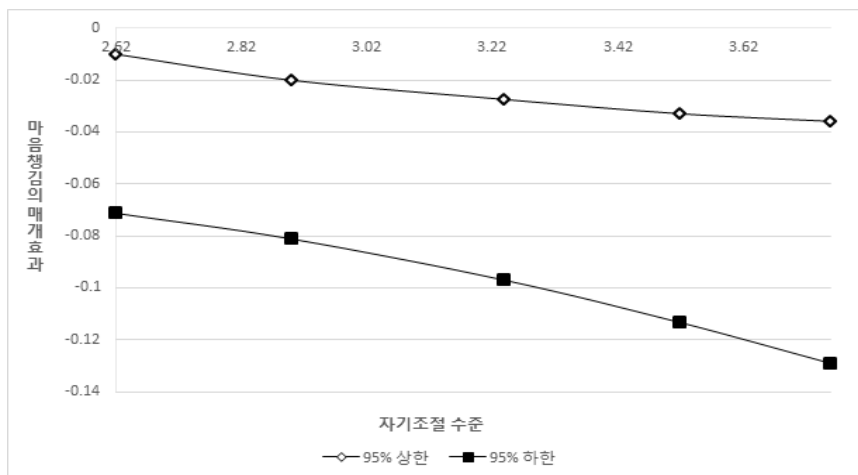
마음챙김의 매개효과가 조절변인인 자기조절의 수준별로 달라지는 양상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조절변인의 평균값과 ±1 표준편차 값에서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한 결과를 <표 11>에 제시하였다. 자기조절이 낮은 수준(M=2.78)에서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 자기조절의 중간수준(M=3.22)과 높은 수준(M=3.65)도 추정된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미함을 알 수 있으며 자기조절이 낮을 때 조절된 매개효과와 강도가 가장 낮고 자기조절이 높을 때 매개효과와 강도가 높아짐이 확인되었다.

〈표 11〉 자기조절의 수준별 마음챙김의 매개효과

조절변인	수준	조절변인의 특정 값에서의 조절된 매개효과			
		B	SE	LLCI	ULCI
자기조절	2.78	-.04	.02	-.08	-.02
	3.22	-.06	.02	-.10	-.03
	3.65	-.07	.02	-.12	-.03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결과를 통해 검증된 조건부 간접효과를 도식화한 결과를 <그림 4>에 제시하였다. 제시된 그래프에서 매개효과와 유의성을 조절변인의 수준별로 확인할 수 있고, 효과 추정치의 표준오차를 이용해 신뢰구간을 추정하여 95% 상한 지점과 하한 지점을 연결한 선을 이용해 변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추정된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게 되면 해당 지점부터는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음을 뜻한다. 0과 가까운 95% 상한 곡선이 자기조절이 증가할수록 0에서 멀어지고 있어 자기조절의 수준에 상관없이 전 구간에서 매개효과가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 자기조절 수준별 마음챙김의 매개효과 변화

다음으로 조절된 매개지수의 공식 검정을 활용하여 조절된 매개지수를 산출하였다. 조절된 매개지수(Index)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매개효과와 조절변수의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동시에 서로 다른 조절변수 수준에 따라 나타나는 조절된 매개효과는 서로 유의미하게 다를 수 있다(Hayes, 2015). <표 12>에 제시한 바와 같이 매개변인인 마음챙김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조절변인인 자기조절의 수준에 따른 조절된 매개효과의 크기는 서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두 지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2> 조절된 매개의 공식 검정

매개변인	Index	SE	LLCI	ULCI
마음챙김	-.04	.02	-.08	-.00

V. 결론 및 논의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기혼 직장여성 303명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개인 시간 부족과 일터와 가사, 양육 등 다방면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기혼 직장여성들은 낮은 자각수준과 낮은 자아수용 등 부정적인 태도로 심리적 안녕감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불편한 가운데 자신의 감정, 생각, 정서 등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챙김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하는지 살펴 보았으며, 마음챙김을 통해 내적 상태와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정서, 사고, 행동 동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자기조절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기혼 직장여성의 직무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마음챙김, 자기조절 상관관계

첫째,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는 부적 상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행정직원(박지원, 2014)과, 초등교사(권연희, 2012), 성인여성(조금숙, 조증열, 2004)을 대상으로 두 변인 간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는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 중 환경 통제력과 강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혼 직장여성이 직무와 관련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떨어지는데, 심리적인 안정감 중 특히 직장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원활하게 처리하는 능력과 이에 대한 통제력을 낮출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직무스트레스와 마음 챙김의 관계는 부적 상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마음 챙김이 어렵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직무스트레스와 마음챙김 간의 관계를 탐색한 선행연구(박성현, 2013; 최정임, 2015; 윤지영, 2015)와 일치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직무스트레스와 마음 챙김의 하위요인 중 탈 중심주의와 가장 강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기혼 직장여성고 상담 장면에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감정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기혼 직장여성이 지각하는 마음 챙김은 심리적 안녕감과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마음 챙김을 할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마음챙김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탐색한 국내 선행연구(박윤환, 2014; 박민정, 2013; 한정균, 2008)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마음 챙김의 하위요인인 현재 자각과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 중 긍정적 대인관계가 가장 높은 정적 관계를 보였다. 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경험에 대한 즉각적이고 명료한 알아차림이 타인과 따뜻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마음챙김과 자기조절은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높은 마음챙김 수준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하는 사고, 정서, 행동 및 동기에 대하여 참여 관찰자의 시각에서 자기조절능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 연구(고종구, 2013; 권혜미, 2013; 신윤철, 2009; 윤선아, 2010; 최윤정, 2010; 최현준, 2012)와 일치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마음 챙김의 하위요인인 탈 중심주의와 자기조절의 의지적 억제가 가장 높은 정적 관계를 보였다. 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의 객관적 관점을 통해 의지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자기조절이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에서 정적 상관임이 확인되었다. 즉 자기조절을 할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규리(2012), 유혜숙(2015), 임지현(2014)의 결과와 일치함을 보여준다. 자기조절과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 중 자아수용과 가장 높은 정적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자기조절을 통해 자기 자신의 긍정적 특성과 부정적 특성을 모두 포함한 자신의 다양한 특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힘을 기를 수 있게 됨을 알 수 있다.

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에서 마음 챙김의 매개효과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마음 챙김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혼 직장여성의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만, 마음 챙김을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마음 챙김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짐을 밝힌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박윤환, 2014; 박민정, 2013; 한정균, 2008; 원두리, 2007). 마음 챙김 수준이 높아짐은 현재 자신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감정에 대해 스스로 알아차리며, 감정이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른 것이 아닌 비 판단적인 수용을 잘 하게 됨을 의미하는데 이는 기혼 직장여성들이 높은 심리적 안녕감에 이르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로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는 자기 자신의 감정에 대해 객관적으로 지각하려는 노력인 마음 챙김 수준을 낮추며 이는 결국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기혼 직장여성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무스트레스를 낮추려는 노력과 동시에 마음챙김 수준을 높이도록 힘써야 함을 알 수 있다.

다. 마음챙김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조절의 조절효과

마음챙김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조절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마음챙김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때 자기조절 수준이 높을수록 마음챙김이 심리적 안녕감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자기조절능력이 개인의 긍정적 태도의 형성에 크게 기여한다(김규리, 2012)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성적 사고로 만족을 지연시키는 자기조절능력은 적응적 정서 조절에 영향을 주어서 긍정적인 심리적 상태를 유지하는데 기여하므로 기혼 직장인 여성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마음챙김 수준과 더불어 자기조절능력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라.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 관계에서 마음챙김의 매개효과와 자기조절의 조절된 매개효과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마음챙김의 매개효과 및 자기조절의 조절효과를 포함하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통합적으로 검증되었다. 즉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기혼 직장여성은 마음챙김을 덜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심리적 안녕감이 낮아지게 되는데, 자기조절 수준이 높을수록 마음챙김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직무스트레스가 마음챙김을 매개로 하여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영향력을 높여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결국 기혼 직장여성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무스트레스를 낮추고 마음챙김과 자기조절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2. 연구의 의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안녕감의 문제를 호소하는 기혼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상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움을 제공하고자 실시하였으며, 이에 기혼 직장여성의 직무스트레스와 마음챙김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조절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마음챙김의 매개효과, 마음챙김과 심리적 안녕감 관계에서 자기조절의 조절효과, 마지막으로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마음챙김이 매개할 때 자기조절이 매개효과를 조절하는지를 확인하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순차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기혼 직장여성의 직무스트레스, 마음챙김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변인들임을 확인하였는데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마음챙김이 매개함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기혼 직장여성의 직무스트레스가 심화 될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떨어지게 되므로 기혼 직장여성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는 프로그램에서 스트레스와 더불어 마음챙김 수준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마음챙김과 심리적 안녕감 관계에서 자기조절의 조절효과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마음챙김은 자기조절의 수준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강도가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 장면에서 마음챙김 수준과 더불어 자

기조절능력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확인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자기조절 기술 향상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의 경우 기존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안녕감을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과 가정을 동시에 수행해야하는 기혼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녕감과 마음챙김 및 자기조절을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의 대표성 문제이다. 서울 및 경기도에 있는 기혼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지역 및 특수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연구 결과에 대한 일반화에 제한점이 있으므로 다양한 지역의 집단의 많은 표본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한국인 대상의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본 연구대상의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는데 다소 부정확한 면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기혼 직장여성이라는 특수한 대상의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 개발에 대한 노력이 향후 필요하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의 정신적·신체적인 개별 특성에 따라 직무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개별 대처 능력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밝힐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참여자들의 개인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직무스트레스 노출 정도나 근무환경의 유해성 등을 자세히 분석하여 각 변인의 수준에 따른 영향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한모(2016). 자기침묵이 분노반추에 미치는 영향: 마음챙김의 조절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종구(2013).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완화프로그램이 남자 고등학생의 주의력과 정서 조절양식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공미혜(1995). 직장내 성희롱의 실태와 영향 요인. 한국여성학회, 11, 110-137.
- 곽현주, 최은영(2014). 일-가정 전이, 직장 내 공정성 및 시간당 임금이 여성 관리자의 경력전망에 미치는 영향. 여성연구, 86, 175-210.
- 권연희(2010). 초등학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혜미(2013). DBT(Dialectical Behavior Therapy)가 우울성향의 청소년들의 우울감, 자기조절,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신, 김정란(1999).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변인 분석. 한국가정과학회지, 2(2), 1-16.
- 김경희, 이복순(2009). 어머니의 마음 챙김과 정서안정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동과 권리, 13(2), 333-362.
- 김교현(2006). 중독과 자기조절: 인지신경 과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1), 63-105.
- 김규리(2012). 초등학생의 정서지능, 자기조절능력 및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분석: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9-39.
- 김성희(2014). 특수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양희(1999). 직장여성의 성희롱 경험과 관련 정책에 관한 의식 여성연구. 한국여성 개발원, 49, 37-56.
- 김정호(2001). 체계적 마음 챙김을 통한 스트레스관리: 정서 마음 챙김을 중심으로. 한국 심리학회지: 건강, 6(1), 23-58.
- 김현정(2012). 아로마 손 마사지가 교대근무간호사의 스트레스와 피로에 미치는 효과. 아주대학교 간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성숙, 한영주, 유성경(2012). 한국에서 '워킹맘'으로 살아가기: 직장인 엄마의 다중역할

-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24(2), 365-395.
- 문정순(2010). 마음 챙김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 공상 자각과 인지적 탈 융합의 매개에 초점을 둔 구조모형과 Q유형분석.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정순, 한규석(2012). 마음 챙김과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 공상 자각과 탈 중심화의 매개효과. 한국 심리학회지: 일반, 31(1), 93-110.
- 박민정(2013). 보육교사의 마음챙김, 심리적 안녕감, 직무만족도와 관계: 심리적 안녕감을 매개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필(2005). 의료기관의 고객만족 정책이 직무스트레스와 사회 심리적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현(2006). 마음 챙김 척도 개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윤환(2014). 마음챙김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긍정정서와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검증.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원(2014). 대학행정직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민(2012). 마음 챙김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방략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민, 채규만(2012). 마음 챙김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방략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2(3), 259-274.
- 배상윤, 박중규(2011). 마음 챙김명상 (K-MBSR)이 알코올 의존자의 심리적 안녕감 및 변화 동기에 미치는 효과. 한국 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논문집, 366-366.
- 송정덕(2015).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낙관성, 지혜 및 자기 조절의 조절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윤철(2009). 마음챙김명상이 회복중인 알코올 의존자의 부정정서와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현정, 박진성(2010). 유아교사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관련변인 탐색연구 : 직무스트레스와 조직효과성을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14(2), 147-170.
- 심지은(2008). 상담자의 마음 챙김, 공감 및 역전이 관리 능력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지은, 윤호균(2008). 상담자 교육에서의 마음챙김 적용. 한국심리학회: 건강 13(2) 307-328.
- 양은주(2005). 고학력 비혼 취업 여성의 일과 삶에 대한 생애사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워킹 맘 고통지수(2013). 여성신문 www.womennews.co.kr.

원두리(2007). 마음 챙김, 의미부여 및 자율적 행동조절이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유정희(2010). 방송인의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과 소진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혜숙(2015). 농촌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갈등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선아(2010). 아동용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지영(2015).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분노표현방식과의 관계에서 마음 챙김의 조절효과.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동수(1999). 직무스트레스 평가를 위한 측정도구 개발 및 표준화 연구. 한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명신(2001). 가정-직장 양립 스트레스원에 대한 여성 근로자 지원서비스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회, 7, 201-230.

이성희, 이승미(2001). 직장여성의 성희롱 경험 실태와 관련변인 분석 : 전라북도 직장여성의 인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156, 41-56.

이지원(2003).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요인. 한국모자보건학회지, 7(2), 207-216.

이철인(2010). 부부 성역할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국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임지현(2014). 고등학생의 마음 챙김과 자기조절능력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혜경(1997). 직장내 성차별 관행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재개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53, 49-67.

조금숙, 조종열(2004).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감 : 성역할태도, 스트레스 및 결혼만족도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3) , 27-41.

조용래(2012).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이 자아존중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7-214.

차윤정(2001). 중년여성의 생활사건과 피로도와와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윤정(2010). 명상을 활용한 집단놀이치료가 유아의 불안 및 자기조절 능력에 미치는 효과.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윤정, 이시연(2007). 한 부모 가족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부모역할: 대처방식,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5(1), 123-142.
- 최정임(2015). 임상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소진, 마음챙김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현준(2012). K-MBSR을 기초로 한 유아명상 프로그램이 유아의 자기조절력 및 기본생활 습관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2015). 2015년 하반기 맞벌이가구 현황 조사 결과 자료.
- 하정희, 강병재(2000). 직장보육이 기혼 직업여성의 양육 만족과 직무에 미치는 영향. 국제여성연구소 연구논총 9(1), 297-313.
- 한정균(2008). 마음 챙김 수준과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행복요인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3), 835-751.
- Andrews, F., Robinson, J. P.(1991). *Measures of subjective well-being*. In J. P.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
- Goleman, D.(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 Kabat-Zinn, J.(2003). "Mindfulness-based interventions in context: Past, present, and future."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10, 144-156.
- Lazarus R. S., & Folkman S.(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Y: Springer.
- Peterson, C., & Seligman, M. E.(2009). Strengths of character and well-being.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5), 603-619.
- NIOSH(2004). *Worker Health Chartbook*
- Reff, C. D.(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Ryff(1995).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ult life.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4, 99-1-4
- Safran, J. D., Segal, Z. V.(1990). *Interpersonal Process in Cognitive Therapy*. New

York : Basic Books. Softcover edition, 1996, Jason Aronson. Inc.

Shaffer, D. R(1993). *Development psychology: Childhood and adolescence(3rd ed.)*.

Pacific Grove, California: Brooks & Cole.

〈Abstract〉

**The Effect of Married Woman's Job Stress and Mindfulness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Self-Regulation-**

Song, Geum-ran · Chung, Eun-jung

hanyangisori Psychological Counseling Center Incheon branch · Myongji University

This study shows to establish the a controlled effect of self-regul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job stress, and the mindfuln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married woman. Especially when you check the adjustment effects of self-regulation, and affect mindfuln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using adaptive self-regulation was intended to determine if the level of psychological well-being could increase.

In order to do so, the survey conducted a survey of 303 female working women in Korea. Statistical analysis uses by SPSS 18.0 and Macro proposed by Hayes (2013).

The summary of the results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job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 mindfulness showed partial effectiveness. This means that job stress is directly influenced by psychological well-being and indirect effects through the mindfulness. Second, when the mindfulness influences psychological well-being, regulation of self-regulation occurs. In particular, the higher the level of mindfulness the greater the adjustment effect of self-regulation.

It has been confirmed that psychological well-being can be heightened by adjusting the level of mindfulness when dealing with job stress. Based on these findings, we discussed the implications for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nd follow-up studies.

Key Words: married woman, job stress, psychological well-being, mindfulness, self-regulation,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초심 슈퍼바이저의 역전이 대처

김명화·홍혜영*

한양사이버대학교 · 명지대학교

본 연구는 초심 슈퍼바이저들이 슈퍼비전에서 경험하는 역전이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슈퍼비전 경력 5년 이하인 초심 슈퍼바이저 7명을 의도 표집하여 심층면담을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하는 현상을 기술하는 것을 강조하는 Giorgi의 현상학적 방법으로 시행하였고, 질적 연구의 한계인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적용성과 일관성, 사실적 가치와 중립성의 단계를 거쳤다. 그 결과 초심 슈퍼바이저들이 슈퍼비전에서 역전이에 대처하는 방법은 자기개방 하기, 객관화 시키기, 자기인식과 수용하기, 자문 구하기, 자기 돌보기 등 5가지 범주로 나타났다. 초심 슈퍼바이저들이 슈퍼비전에서 경험하는 역전이와 그에 따른 대처를 하는 것은 슈퍼바이저로서의 성장을 뜻하며, 슈퍼바이저와의 관계 향상과 슈퍼비전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를 둘 수 있다.

주제어: 초심 슈퍼바이저, 역전이

* 교신저자: 명지대학교 대학원 심리재활학과간협동과정 교수, 홍혜영(hyhong@mju.ac.kr)

■ 게재 신청일: 2019년 8월 1일 ■ 최종 수정일: 2019년 8월 24일 ■ 게재 확정일: 2019년 8월 25일

I. 서론

일반적으로 역전이는 상담자의 미해결 문제 또는 내담자가 이끌어내는 부적응적인 행동을 뜻하며 상담자에게 인지적, 정서적, 그리고 행동적으로 나타난다(Hofsess, & Tracey, 2010). 역전이는 종종 가족 문제, 욕구와 가치, 해고, 문화적 문제와 관련된 미해결된 갈등에서 비롯되며(Hayes, McCracken, & Hill, 1998), 이론적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정신 건강 전문가가 미해결된 개인적 갈등을 가지고 있다(Falender, & Shafranske, 2004; Hofsess, & Tracey, 2010). 해결되지 않은 갈등에 근거한 상담자의 반응인 역전이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형태로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내담자와의 지나친 관여 또는 과소평가(Burwell-Pender, & Halinski, 2008), 객관성의 상실, 경계의 모호함, 과대 평가, 과도한 보살핌, 그리고 내담자에 호감을 갖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Burwell-Pender, & Halinski, 2008). 역전이는 이처럼 내담자를 향한 무의식적이고 의식적인 감정적 반응을 모두 포함하므로, 상담자에게 나타나는 감정을 강조한다(Rossberg, Karterud, Pedersen, & Friis, 2008). 역전이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게 되지 못한 상담자는 자신도 모르게 상담을 방해 하고(Hofsess, & Tracey, 2010), 자신의 미해결된 욕구로 인한 인지와 정서로 내담자를 파악하게 되며, 의도치 않게 내담자를 희생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역전이로 인한 이와 같은 부정적인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역전이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관리되지 않는 역전이로(Burwell-Pender, & Halinski, 2008), 상담자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한 역전이는 부정적인 상담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비윤리적이다. 따라서 역전이에 어떻게 대처하고 관리하는지에 따라 성공적인 상담 결과와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

상담자의 역전이와 유사하게, 슈퍼바이저 또한 슈퍼비전을 하는 도중 역전이를 경험할 수 있다. 슈퍼바이저의 역전이로 인하여 슈퍼비전 과정과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과 결과를 보이기도 하고(Watkins, 2011), 슈퍼바이저를 향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들(Prasko, & Vyskocilova, 2010)이 제시되면서 슈퍼바이저의 역전이를 알아보기 위한 경험적 연구들이 점차 시행되었다.

슈퍼바이저의 역전이가 슈퍼비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에도 불구하고, 슈퍼바이저의 관점에서 슈퍼비전의 어려움을 조사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김명화, 홍혜영, 2017; Nelson & Friedlander, 2001), 상당한 양의 연구가 임상 슈퍼비전의 과정, 특히 슈퍼바

이지의 관점에서 슈퍼비전(Nelson & Friedlander, 2001)과 슈퍼비전 이론(Grant, Schofield, & Crawford, 2012)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역전이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상담자 발달수준(김준혜, 안현의, 2013; 임고운, 김지현, 2008), 역전이를 일으키는 특성(강소영, 한미선, 황숙양, 2008), 역전이 발생과정(김지은, 2005), 상담자의 경력에 따른 역전이(배성만, 김순영, 주은선, 2015)와 관련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상담자의 역전이를 다룬 기존의 연구들은 이처럼 초심 상담자를 대상으로 하였거나, 상담 경력 10년 이내의 상담자(김준혜, 안현의, 2013; 배성만, 김순영, 주은선, 2015)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에 이루어진 연구들이 대부분 양적 연구라는 점, 그리고 슈퍼비전 장면이 아니라 상담장면에서의 역전이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슈퍼비전에서 슈퍼바이저의 역전이를 자세히 알기는 어려웠다.

이와 같은 한계에서 벗어나 상담자의 역전이 과정을 자세히 기술한 하 정(2016)의 연구는 역전이 과정과 관리를 자세히 기술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상담전문가 즉, 슈퍼바이저가 된 직후 부터 22년 까지의 다양한 경력을 지닌 상담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초심 슈퍼바이저의 역전이에 대하여 알기에는 다소 부족하였다. 또한 슈퍼비전에서의 역전이보다 상담에서의 역전이를 주로 다루었으므로 초심 슈퍼바이저의 역전이에 관하여 자세히 알기는 어려웠다. 소수연과 장성숙(2014)은 슈퍼바이저가 슈퍼비전을 수행하는 과정에 대하여 질적 연구를 하였는데 슈퍼비전에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슈퍼비전에 활용한다는 특성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이나 원인, 대처에 대한 논의는 거론하지 않았다. 특히 Bang과 Park(2009)은 슈퍼비전의 목적과 역할에 비하여 슈퍼바이저의 경험적 연구가 부족함을 강조하였다. 그들의 연구에서 슈퍼바이저가 역전이를 느낄 때 슈퍼바이저의 역전이를 다루어 주기도 하고, 슈퍼비전과 상담을 구분하여 개입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들의 연구는 초심 슈퍼바이저가 아니라 슈퍼비전 경력이 8년~25년된 숙련된 슈퍼바이저를 연구한 것이어서 본 연구에서 보려는 초심 슈퍼바이저의 역전이를 알아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슈퍼비전을 통하여 상담의 기술이 전수되고, 자신이 받은 슈퍼비전의 형태로 슈퍼비전을 하게 된다는 기존의 연구들(Bang, & Park, 2009)과 슈퍼비전에서의 역전이가 슈퍼비전이나 슈퍼바이저와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Grant, Schofield, & Crawford, 2012; Ladany, Constantine, Miller, Erickson, & Muse-Burke, 2000; Prasko, & Vyskocilova, 2010; Vyskocilova, & Prasko, 2013)에 주목한다. 슈퍼바이저의 역전이는 국내의 연구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았으나, 슈퍼바이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국외의 연구들(Grant, Schofield, & Crawford, 2012; Prasko, & Vyskocilova, 2010; Quarto, 2003; Vyskocilova, & Prasko, 2013; Watkins, 2011; Young, Lambie, Hutchinson, & Dyer, 2011)을 볼 때 국내의 수퍼바이저들이 자신의 역전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여겨진다.

초심 수퍼바이저들은 새롭게 주어지는 수퍼비전의 역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고(오효정, 최한나, 2015), 안쓰러운 마음이 역전이 라는 것을 모르거나, 과도한 몰입을 공감이라고 오해하는 등 긍정적인 역전이를 알아채기 어렵힌다(하 정, 2016). 상담경력이 많고 상위인지가 높을수록 (김순영, 배성만, 주은선, 2015),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이경운, 2016), 역전이 자각이 높을수록(김택준, 신희천, 2016) 역전이 관리 능력이 높다는 결과들이 있지만, 연구 모두가 수퍼바이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었다. 그러므로 수퍼바이저로서의 역전이를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숙하게 자신의 역전이를 인식하고 다룰 수 있는 숙련된 수퍼바이저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이제 막 수퍼비전에 첫 발을 디딘 초심 수퍼바이저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수퍼바이저가 자신의 역전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수퍼비전을 할 경우, 수퍼바이저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 예측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를 통하여 초심 수퍼바이저들이 자신의 역전이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그 중에서도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는데, 현상학적 연구는 인간 경험을 바탕으로 한 분석을 통해 의미를 드러내고자 하는 연구이기 때문이다. 현상학적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경험과 그 경험이 가지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참여자들의 일상세계를 기술하고 묘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따라서 참여자의 언어로 만들어진 자료를 기술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현상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심 수퍼바이저의 역전이 경험을 알아보기 위하여 Giorgi의 현상학을 토대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해체와 재구성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학적 방법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적용성’, ‘일관성’, ‘사실적 가치’와 ‘중립성’을 근거로 삼았다.

II. 이론적 배경

수퍼비전은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저가 서로 상호 작용하는 것으로 상담에서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Quarto, 2003). 슈퍼비전은 적절한 훈련과 자격증을 소지한 숙달된 전문 상담자가 동일한 직업의 초보 상담자의 성장 과정을 촉진시키고, 전문적인 역량을 향상시키는 과정으로(Grant, Schofield, & Crawford, 2012; Young, Lambie, Hutchinson, & Dyer, 2011.) 슈퍼비전에서의 관계는 전이와 역전이를 포함하며, 광범위하고 필수적으로 나타난다(Watkins, 2011). 슈퍼비전은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 관계의 질에 의존하는 과정으로(Zaslavsky, Nunes, & Eizirik, 2005), 대화를 통한 복잡한 의사소통이다. 지나치게 희생하고 봉사하는 태도의 역전이가 슈퍼비전 관계를 그르칠 수 있고, 슈퍼바이저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나 욕구들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슈퍼비전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Grant, Schofield, & Crawford, 2012; Ladany, Constantine, Miller, Erickson, & Muse-Burke, 2000).

슈퍼바이저는 슈퍼비전을 하는 도중 스스로 역전이를 경험할 수 있고 그들의 문제는 슈퍼비전 과정과 결과에 긍정적이지 않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역전이는 정신분석과 같은 특정한 이론적 관점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이론적 관점에서의 슈퍼비전에서도 나타난다. 슈퍼바이저의 역전이는 불안감이나 긴장감, 손에 땀이 나는 것, 슈퍼비전을 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반대로 과도한 친절함이나 애정,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지 않는 행동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Prasko와 Vyskocilova; 2010). 슈퍼바이저로서 부적절한 반복을 하거나 과장하여 표현하는 것, 슈퍼바이지와 의 갈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러한 역전이는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기도 하고, 슈퍼바이저의 과거와 현재의 왜곡과도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Watkins, 2011). 슈퍼바이저의 역전이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한 Prasko와 Vyskocilova(2010)는 역전이의 본질을 적절히 처리되지 않은 슈퍼바이저의 이전 경험으로 보았으며, 슈퍼바이저가 이를 현재 관계로 투사하는 것으로 보았다. 어린 시절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거나 좌절, 상처, 거절을 경험한 경우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관계가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대부분 의식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슈퍼비전에서의 이러한 역전이는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의식적인 특성을 지닌 슈퍼바이저는 슈퍼바이지를 무책임하고, 게으르게 보기도 하고(Prasko, & Vyskocilova, 2010), 애정과 지지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과 분노, 실망, 불신 등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거나, 때로는 슈퍼바이지를 향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하기도 한다(Vyskocilova, & Prasko, 2013). 슈퍼비전은 근본적으로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가 함께 구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슈퍼바이저로서의 능력과

권력을 남용할 가능성도 있다(Jacobs, 1991). 수퍼비전에서의 역전은 이처럼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고(Grant, Schofield, & Crawford, 2012), 수퍼비전 관계가 약화될 경우 내담자를 이해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며 수퍼비전의 회피로 이어질 수도 있다(Nelson & Friedlander, 2001; Quarto, 2003). Ladany와 그의 동료들(2000)에 의하면 수퍼바이저의 역전으로 인하여 수퍼바이저와의 관계가 느슨해졌음을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강력한 역전이 감정은 동료 수퍼비전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며 수퍼바이저의 역전이를 다룰 것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수퍼비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저 간의 강력한 동맹 관계가 필요하다(Falender, & Shafranske, 2004; Young, Lambie, Hutchinson, & Dyer, 2011).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강력한 동맹 관계를 위하여 역전이를 다루어야 하며, 역전이의 성공적인 관리는 더 나은 치료 결과와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역전이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학자들(Rowan, & Jacobs, 2002; Winstone, & Gervis, 2006; Zaslavsky, Nunes, & Eizirik, 2005)에 의하여, 역전이 관리에 대한 연구들이 관심을 받게 되면서 Van Wagoner와 동료들(1991)은 역전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역전이 관리와 관련된 능력, 그리고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자기통찰’, ‘자기통합’, ‘공감능력’, ‘개념화 기술’, ‘불안관리’를 설명하면서(Burwell-Pender, & Halinski, 2008; Hayes, McCracken, & Hill, 1998; Winstone, & Gervis, 2006), 이러한 다섯 가지 요인들 중에서도 자기통합과 자기통찰이 특히 역전이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수퍼바이저의 역전이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다른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기 인식과 자기탐색, 개인분석, 동료 수퍼비전, 자기개방 등이 있다. 먼저 자기인식은 수퍼바이저가 역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진다. 자기 인식과 유사한 개념으로, 자기 성찰이 수퍼바이저의 역전이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 학자들(Grant, Schofield, & Crawford, 2012; Ladany, Constantine, Miller, Erickson, & Muse-Burke, 2000; Prasko, & Vyskocilova, 2010)에 의하면 역전이는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은 수퍼바이저의 이전경험이다. 그러므로 역전이 반응이 사고, 정서, 행동, 그리고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자신의 역전이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는 수퍼바이저의 경우 수퍼바이저와 내담자를 인식하게 되므로 수퍼비전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Prasko, & Vyskocilova, 2010). 그렇기 때문에 수퍼비전 과정에서 수퍼바이저를 향하여 자신의 강렬한 감정이 일어나는 것,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그리고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흐름을 수퍼바이저 스스

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Grant와 동료들(2012) 또한 슈퍼바이저들이 자신의 역전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자기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이중관계나 슈퍼바이저의 저항, 슈퍼바이저의 낮은 능력, 슈퍼바이저의 부정적인 피드백과 같은 문제를 다루기 위해 스스로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슈퍼바이저가 자신의 생각, 행동 및 감정을 자주 확인하고 감정에 대한 자극을 인식하며 이러한 생각, 행동 및 감정의 기원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Young, Lambie, Hutchinson, & Dyer, 2011). 슈퍼바이저의 역전이를 관리하기 위한 또 다른 요인으로 개인분석을 들 수 있다. 슈퍼비전과 분석의 경계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왔다. 개인 분석은 역전이를 접근하기 가장 적합하지만 슈퍼비전을 치료로 접근하지 않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적절하다(Zaslavsky, Nunes, & Eizirik, 2005). 그러므로 슈퍼비전이 슈퍼바이저의 치료로 변형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개인분석이 필요하다(Winstone, & Gervis, 2006). 이것은 중립성과도 관련이 있는데 분석가이면서 슈퍼바이저이기도 한 슈퍼바이저는 기능과 역할을 적절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Zaslavsky, Nunes, & Eizirik, 2005).

다음으로는 슈퍼비전을 받는 것인데, 동료와의 슈퍼비전은 당사자 모두 역전이에 대한 충분한 훈련이 되어 있고 높은 자기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효율적이다(Rowan, & Jacobs, 2002; Winstone, & Gervis, 2006). Sattar와 동료들(2004)도 역전이로 인하여 객관성을 잃게 되는 경우 동료와의 슈퍼비전이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그들은 슈퍼바이저가 객관성을 잃게 될 경우 슈퍼비전을 중단할 것을 제안하였다.

역전이 관리에 대한 또 다른 요인으로 제시된 것은 자기 개방이다. 슈퍼바이저의 적절한 자기 개방을 권고한 학자들(Hayes, & Gelso, 2001; Young, Lambie, Hutchinson, & Dyer, 2011)에 따르면, 적절한 자기개방이 슈퍼바이저와의 거리감을 좁히고 작업동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슈퍼바이저가 슈퍼비전 내에서 개방성과 취약성을 보여줌으로써 슈퍼바이저는 불완전성, 자기 성격 및 개성에 대해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게 되므로 도움이 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하지만 반대로 그러한 자기 개방이 슈퍼비전 과정을 방해한다는 의견이 있어(Grant, Schofield, & Crawford, 2012; Skjerve, Nielsen, Jacobsen, Gullestad, Hasen, Reichelt, Rønnestad, & Torgersen, 2009), 슈퍼바이저의 자기 개방은 일치되지 않은 의견을 보였다.

지금까지 슈퍼바이저의 역전이에 대처하는 요인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내부 작업의 요소로는 자기 모니터링과 성찰, 반성을 통하여 자신을 인식하는 방법과 외부 작업의 요소로는 동료와의 슈퍼비전이나 자기 개방을 통해 역전이를 타인과 나누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역전이는 복잡하고 개인적인 일이며, 때로는

수치스러운 경험일 수 있으므로 슈퍼바이저가 자신의 역전이를 인식하고 관리하며 슈퍼바이저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슈퍼비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그에 따른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으나 슈퍼비전을 수행하는 슈퍼바이저들이 실제 어떠한 역전이를 경험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기 어려웠다. 외국의 연구들에서 슈퍼바이저의 역전이를 다루고 있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국내에서는 슈퍼바이저의 역전이나 대처 방법에 대하여 다른 연구가 드물다. 상담과 슈퍼비전은 상담이라는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는 공통된 전제를 가진다. 하지만 슈퍼비전은 상담과는 또 다른 전문적인 분야이며, 상담자로서의 경험은 슈퍼바이저로서 충분하다고 여겨지지 않는다(방기연, 2002). 슈퍼비전은 상담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적 측면이 개입되는 전문적 영역으로 일대일의 관계에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슈퍼바이저의 영향력이 무엇보다 크기 때문이다.

상담에서 나타난 문제들은 슈퍼비전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난다. 숙련된 슈퍼바이저는 자신의 역전이를 슈퍼비전에 활용하고 슈퍼비전과 상담을 분리하여 개입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만(Bang, & Park, 2009), 초심 슈퍼바이저는 자신의 역전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역전이 감정을 억압 한다(전정운, 한재희, 2012).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슈퍼비전 경력에 따른 역전이 대처방법이 확연히 다르다고 볼 수 있으나 슈퍼바이저의 발달에 따른 역전이 대처가 어떻게 나타나고 무엇이 다른지 경험적인 연구들은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슈퍼비전을 시작한 초심 슈퍼바이저들이 자신이 경험한 역전이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탐색해보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심 슈퍼바이저를 연구 대상으로 한 이유는 상담으로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이지만, 슈퍼비전의 경험은 많지 않기에 슈퍼비전에서 나타나는 역전이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아보려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심 슈퍼바이저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슈퍼비전에서 경험하는 역전이를 어떻게 대처하여 회복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를 드러내자 하였다.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질적 연구 방법 중 현상학적 방법을 선택하였다. 현상학은 ‘사물이나 현상 그 자체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현상이나 사물에 대한 경험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을 뜻한다. 현상학에서 Giorgi는 인간의 경험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연구할 현상에 대하여 기술하는 것을 강조하였으므로 현상학 중에서도 Giorgi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는데, 개인적 기술에서 출발하는 진술에서 참여자의 독특한 개별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의 경험을

일반적인 기술로 통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즉, Giorgi는 대상자가 진술한 언어 그대로를 기술하고 그 내용을 학문적 용어로 변환하여 전체 맥락에 따른 의미 구조를 도출해 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연구 주제인 ‘초심 수퍼바이저들의 역전이 대처는 어떠한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방법 및 절차

인간의 다양한 현상과 문제들은 고유하고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존의 연구들에서 이루어진 양적 연구방법론처럼 측정, 계량화하는 방법으로는 인간에 대한 복합한 구조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인간 현상은 멈춰있는 것이 아니며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므로 그 과정에서의 의미를 탐색하고 추론할 때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다. 따라서 연구하고자 하는 문제에 적합한 연구방법이 선택되어야 하며, 질적 연구 중에서도 연구주제와 연구 목적에 따라 적절한 방법론을 선택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초심 수퍼바이저의 역전이 대처에 대하여 탐색할 수 있는 현상학적 질적 연구에서 Giorgi의 방법을 선택하였다. 현상학적 방법은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참여자의 경험을 중요시 여기고 그것이 함의하는 의미를 드러내는 데 유용하다. 현상학은 대상과 의식 사이의 역동이나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것으로, 현상학자들은 그 의미와 본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있는 그대로의’ ‘현상으로’ 사람이나 사물을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선입견을 배제하고 판단중지의 과정을 통해 연구자의 편견과 선이해를 괄호 속에 묶어두는 환원의 과정을 중요시한다. 그러기 위하여 연구자는 자신의 선입견이나 선이해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하며, 그러한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하여 충분한 훈련이 필요하다(이남인, 2017). Giorgi는 인간 경험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연구하는 현상을 기술하는 것을 강조하므로 언어로 된 자료를 기술하고 분석하기를 제안한다. 연구 대상자들의 원자료는 연구자에 의해 사실적 개념으로 수정되고 변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가 경험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연구자가 질적 분석 절차를 거치면서 과정에 관심을 기

울일 것을 강조한다(Giorgi, 1985).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초심 수퍼바이저가 수퍼비전에서 경험하는 역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으므로 생생하게 기술되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연구 참여자의 선정은 질적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최소 10회 이상의 수퍼비전과 5년 이하의 수퍼비전 경력 등 일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 수퍼바이저가 대상이다. 이들의 경험을 알아보려고 연구자의 동료인 수퍼바이저 두 명에게 예비 인터뷰를 시행하였는데 질문이 다소 추상적이라는 감수자의 의견에 따라 질문지를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예를 들어 ‘수퍼비전에서 역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의 질문은 ‘수퍼비전에서 역전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이야기해주시시오.’로 바꾸면서 사고, 감정, 신체 반응, 이미지 등으로 구분하여 세밀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질문지를 수정하였다. 또한 역전이가 가지는 의미와 영향에 대한 질문들 ‘수퍼비전에서 역전이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와 ‘역전이가 수퍼바이저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등을 추가하여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참여자에게 인터뷰를 하기 전 질문지를 이메일로 보내주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하였고 첫 인터뷰에서 연구목적, 소요시간, 정보 관리, 비밀보장, 그리고 어떠한 불이익 없이 연구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내용이 담긴 설명문과 동의서를 전달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층 면접을 위한 연구 질문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질문

1. 역전을 자각한 후 자신이나 수퍼바이저를 보는 것이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2. 역전을 경험하였다면 그 상황(내용)을 다루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3. 역전을 활용하기 위해 상담 전문가로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수퍼비전에서 역전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사고, 감정, 신체 반응, 이미지 등 구체적으로)
5. 수퍼비전에서의 역전이가 수퍼바이저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 하십니까?
6. 수퍼비전에서 역전이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7. 역전이와 관련하여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인터뷰는 참여자의 편의를 위하여 참여자가 근무하는 곳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인터뷰는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한 회기의 인터뷰는 45분 ~ 1시간 15분 정도였다. 2차와 3차 인터뷰는 이전 인터뷰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고, 이전 인터뷰에서 연구자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함께 하였다. 인터뷰 내용을 보다 생생하게 느

끼고 연구 참여자들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인터뷰와 전사 작업 모두 연구자가 직접 하였다. 인터뷰가 끝난 전사된 원자료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보내주어 연구자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뷰 내용과 내용 범주를 분류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매 단계마다 확인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여자들의 역전이 관리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면서 글쓰기를 시작하였고, 더 이상 새로운 주제가 나오지 않는 포화상태일 때 인터뷰와 분석을 마무리 지었다.

연구 참여자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름과 인적사항, 그리고 인터뷰 내용은 모두 연구자만이 알 수 있는 특수문자로 기록하였고, 잠금장치를 사용하여 저장하였다. 참여자들이 말한 경험들에 대한 느낌이 희석되지 않도록 원 자료를 반복해서 정독하며 참여자의 삶에 들어가 이해하고자 하였다.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는 참여자들의 심층 면접의 내용을 필사하여 연구의 자료로 삼는다. 본 연구는 수퍼바이저의 역전이 대처에 대하여 알아보려는 것이므로 Giorgi가 제시하는 자료 분석의 절차를 따르며 시행하였다.

첫째, 전체 자료를 여러 번 읽으면서 전체의 상황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단순한 추출의 작업이 아니라 전체 흐름을 알기 위한 것으로 다음 단계의 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자료 천천히 읽으며 현상에 초점을 맞추면서 자료를 천천히 여러 번 읽으면서 의미단위를 분석해 나갔다. 추출한 의미단위는 계속 수정되어지기 때문에 반복해서 원 자료를 읽으며 의미를 파악하려 하였다.

셋째, 연구하려는 현상에 초점을 두고 연구자의 언어로 변환하였다. 이는 의미 단위를 찾아 공통된 의미 단어를 범주화시키는 과정에 해당된다.

넷째, 표현된 의미 단위를 일반적 구조로 통합하기 위하여 숙고의 과정을 거쳤다. 이후 의미단위를 묶는 범주를 기술하였고, 연구 분석팀과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자는 이러한 과정에 따라 원자료를 반복해서 읽으며 초심 수퍼바이저의 역전이 대처의 의미와 구조를 이해하려 하였다.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 연구노트를 통하여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선이해를 검토해 보았고, 인터뷰를 할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메모하고 다음 인터뷰에서 확인할 내용들을 기록하였다. 인터뷰 상황을 생생하게 느끼기 위하여 인터뷰가 끝날 때 마다 연구자가 직접 전사를 하며 원자료를 생산하였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만든 원자료를 제대로 이해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인터뷰에서 모호한 내용들을 다시 확인하였다. 이후 연구 분석팀과 논의를 하며 적절하게 범주가 구분이 되었는지, 주제들이 그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지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후 참여자들에게도 자료를 보내어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연구준비

질적 연구를 함에 있어 참여자의 정보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MJU-2017-06-001-03)를 득하여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확보하고 준수하며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 1급과 청소년상담사 2급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상담과 슈퍼비전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세 번의 질적 연구를 시행한 경험이 있다. 연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질적 연구 수업을 통하여 질적 연구로 된 논문과 학술지를 정독하며 질적 연구에 대한 이해를 놓치지 않으려 하였으며, 한국교육인류학회와 한국심리측정평가학회의 워크숍에 참여하여 질적 연구에서 멀어지지 않으려 하였다. 기존의 질적 연구들과 연구자 개인의 인식에서 형성된 선이해와 선입견이 본 연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연구자의 선이해와 선입견들을 분리시키려 의식적으로 노력하며 연구노트에 기재하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였다.

3. 연구 참여자

질적 연구는 소수의 사람이 양질의 내용을 풍부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연구 참여자들의 선정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경험한 내용을 풍부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연구의 주제를 잘 드러낼 수 있는 대상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적절성’과 ‘충분성’을 제공할 수 있어야하며 이론적 표본 추출을 통해 연구의 주제를 잘 표현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의 동료 슈퍼바이저에게 예비 인터뷰를 시행한 후 또 다른 초심 슈퍼바이저를 소개받는 눈덩이 표집의 방법을 사용하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초심 슈퍼바이저는 상담 경력 6년 이상, 슈퍼비전 경력 5년 이하인 경우(전정운, 한재희, 2012)로 하였으며, 10회 이상의 슈퍼비전 경력이 있는 7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의 기본 정보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연구 참여자의 기본 정보

참여자	성별	연령대	상담경력	수퍼비전경력	소속 학회
1	여	30대	12년 6개월	4년	한국상담심리학회
2	여	40대	14년 7개월	2년	한국상담학회
3	여	50대	10년	4년	한국상담심리학회
4	여	50대	19년	3년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5	남	50대	16년	3년 7개월	한국계슈탈트상담학회
6	여	40대	10년	4년	한국상담심리학회
7	여	60대	11년 6개월	3년	가족상담전문가

4. 연구 분석팀 및 감수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 분석팀을 구성하였다. 분석팀은 상담 관련 박사과정생으로 한 명은 질적 연구 수행 경험이 있으며, 한 명은 초심 슈퍼바이저이다. 성별은 남성 2명, 여성 2명 총 4명 이었다. 연구 분석팀은 예비연구나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로, 질적 연구 수업을 함께 들으면서 질적 연구를 읽고 공부하며 질적 연구에서 멀어지지 않으려 노력하였다. 분석팀과 연구자는 연구자가 분석한 내용이 제대로 포함되었는지 토론하는 과정을 함께 하였다.

연구주제에 따른 전반적인 내용과 절차, 방법 그리고 연구의 윤리성에 대하여 감수자에게 꾸준히 피드백 받으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감수자는 상담심리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상담분야에서 23년의 연구 경력이 있는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상담심리 전문가이다. 예비 인터뷰가 끝난 후 감수자의 조언에 따라 본 연구의 인터뷰 질문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고, 다양한 학회의 자격을 가진 참여자를 포함시켰다.

5.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질적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Guba와 Linchol Guba, & Lincoln (1981)의 네 가지 평가 기준인 ‘적용성’, ‘일관성’, ‘사실적 가치’와 ‘중립성’을 통하여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첫째, ‘적용성’은 연구의 결과를 읽었을 때 독자들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면 적용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자신의 역전이에 대하여 숨김없이 표현할 수 있는 상담전문가를 선정하였으므로 ‘적용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결과까지 지속되는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 전반에 대한 기록을 하고 연구자 개인의 선입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연구 분석팀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한 수정작업을 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이러한 모든 과정에 대하여 감수자의 지속적인 감수를 받으면서 진행하였다.

셋째, ‘사실적 가치’는 양적 연구에서 내적 타당도에 해당한다. 타당도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스스로 끊임없이 질문하고 의문을 제기하며 연구의 가치를 향상시키려 하였다. 원자료에서 연구 결과로 이어지는 과정 이후, 연구 결과에서 다시 원자료로 돌아가 연구자의 의미가 제대로 내포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선이해가 연구 주제를 흐리게 하지 않고 ‘중립성’을 가지기 위하여 끊임없이 판단중지를 하려 노력하였다. 인터뷰와 자료를 전사하여 원자료를 생산하고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 개인의 선입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연구노트를 보면서 선입견으로 인한 경계를 가지지 않으려 노력하였다.

IV. 연구 결과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은 심층면접을 한 내용을 연구의 재료로 삼는다. 연구자는 원자료를 가지고 Giorgi의 자료 분석의 절차를 따랐다. 원자료를 여러 번 읽으며 전체를 파악한 후 의미단위를 분석하였다. 이후 연구 주제를 범주화시키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그 의미를 다시 파악하였다. 연구 분석팀과 논의하여 범주를 수정하였고 연구 참여자들에게 보내어 그 의미와 주제가 알맞게 포함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초심 슈퍼바이저의 역전이 대처에 5가지의 범주와 12가지의 주제가 추출되어, 표 3에 제시하였다.

범주 1. 자기개방

초심 슈퍼바이저들은 슈퍼비전 회기에서 느낀 자신의 감정을 슈퍼비전 회기에 바로 다루는 경우도 있었고 시간이 지난 다음 이후에 진행되는 슈퍼비전 회기에 다루는 경우도 있었다. 때로는 자신의 역전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거나, 너무 열심

히 하지 않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주제 1. 표현하기

수퍼바이저의 태도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긍정적인 수퍼비전 관계가 될 수 있다. 초심 수퍼바이저들은 수퍼바이저가 눈물을 흘리거나 수퍼바이저에게 화를 내는 경우, 또는 수퍼비전에서 열심히 참여 하지 않거나 수퍼바이저와 힘겨루기는 하는 경우 등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서 느껴지는 자신의 역전이 감정을 수퍼바이저에게 표현하고 있었다. 수퍼바이저가 수퍼바이저에게 옳지 않은 행동에 대하여 자신이 느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내담자의 행동이 변화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었다.

〈표 3〉 초심 수퍼바이저의 역전이 대처 분석결과

범주	주제
자기개방	표현하기
	시간을 두고 나중에 다루기
	거리두기
객관화 시키기	사례에만 집중하기
	역지사지하기
자기인식과 수용	자신에 대해 깊게 생각하기
	자기 반성하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기
자문	동료 전문가에게 조언 구하기
	개인분석 받기
자기 돌봄	휴식 취하기
	기록 하기

“내담자의 입장을 좀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보다, 바꿀려고 하는 마음이 이제 좀 크더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 분이 막 화를 내시더라구요. 자기가 도움이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화를 내시더라구요. ‘뭐 그런 거는 다 아는 거 아니냐? 내가 그런 거 들으러 여기 온 줄 아느냐? 이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말이 이해가 안된다’ 하면서... 당황스럽기는 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근데 수퍼바이저가 화가 났다는 정도는 이 사람도 알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지요. 즉시성을

활용해서. 그래서 제가 ‘내가 내용상의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수용을 하겠지만, 지금 가장 일반적이면서 내가 판단한 내용들을 전달했을 뿐인데, 그렇게 화를 낼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걸 교육적으로 서로 간에 예의에 벗어난 것 같다. 굉장히 불쾌하다.’ 그리고 나서 10분 15분 더 화를 내시다가 나중엔 좀 약간 화가 수그러들고 나서는 미안하다고 창피한 듯이 갑자기 홀연히 사라지셨어요. 급히 자리를 뜨시고 사과를 하면서도 당황하시고. 지금 생각해보면 내담자가 문제이고 상담자는 문제가 없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셨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참여자 5)

주제 2. 시간을 두고 나중에 다루기

초심 슈퍼바이저들은 슈퍼비전 회기에서 느껴졌던 자신의 역전이 감정에 대하여 다음 회기 혹은 몇 회기가 더 지난 다음에 다루는 경우들이 있었다. 지난 피드백에 대하여 자신이 느낀 감정과 슈퍼바이저의 반응에 대하여 슈퍼바이저에게 이야기하며 자신의 역전이 감정을 함께 나누고 있었다. 초심 슈퍼바이저들이 이처럼 시간이 필요했던 것은 자신의 감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슈퍼바이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접점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 초심 슈퍼바이저에게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슈가 생기면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이제 바로 하지는 않고 뭐 예를 들면 한 3~4번 했는데 그런 내용이 느껴졌다. 그게 계속 그렇다면 슈퍼비전을 여러 번 했는데 조금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 그러면 그렇게 슈퍼비전을 몇 번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거 같진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바로 하는 건 아니구요.”(참여자 7).

주제 3. 거리두기

슈퍼바이저의 행동으로 인한 역전이가 일어날 경우 초심 슈퍼바이저는 자신의 역전을 어떻게 표현할지 망설여져 슈퍼바이저가 스스로 깨닫도록 기다리거나 소심한 복수처럼 신경을 덜 쓰는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초심 슈퍼바이저의 이러한 머뭇거림은 더 이상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인 동시에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슈퍼바이저에 대한 실망의 표현이 형식적인 태도로 나타는 것이었다.

“친절함이 줄어들어서 어... 약간 이렇게 은근하게 좀 그 사람한테 이전보다는 덜 정성스럽게 대해 주는 거”(참여자 5)

범주 2. 객관화 시키기

수퍼바이저의 감정과 슈퍼바이저 자신의 감정이 뒤섞여 있을 때 자신의 감정에서 한 발 물러서서 자신의 감정과 역전이가 일어났던 상황을 제 3자의 객관적인 시선에서 보려 노력하고 있었다.

주제 1. 사례에만 집중하기

수퍼바이저의 태도, 내담자와 슈퍼바이저의 상담에서의 역동과 더불어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의 복잡한 구조는 역전이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초심 슈퍼바이저는 역전이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낄 때 객관성을 가지려 상담 사례에 집중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경계를 세우려고 하지요. 사례에 더 집중 하려고 하고. 처음에 했을 때는 정말 경계가 모호했거든요. 그래서 사례에 집중하려고 해요.”(참여자 4)

주제 2. 역지사지하기

초심 슈퍼바이저는 역전이가 느껴질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있었다. 자신이 슈퍼바이저의 입장이었을 때를 떠올림으로써 슈퍼바이저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다.

“역전이가 올라 올때요... 역지사지 해 보는 거지요. 뭐 나도 이렇지 않았을까... 나 또한 되게 미성숙하고, 뭐 저랬을 거 같은데... 네.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거지요.”(참여자 6)

범주 3. 자기인식과 수용

역전이를 자각해야 자신을 이해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으며 더 나은 방향 설정을 할 수 있다. 초심 슈퍼바이저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인식하고 슈퍼비전을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더 자세히 보고 있었다.

주제 1. 자신에 대해 깊게 생각하기

초심 수퍼바이저는 자신의 역전이 감정에 대하여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상담 뿐 아니라 수퍼비전을 하면서도 역전이가 느껴지므로 자신에게 좀 더 집중하고 자신을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있었다.

“저 자신에 대해서 아직도 내가 이 문제가 내 안에 많이 남아있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저를 좀 보는 거지요. 이 문제가 아직도 내 안에 미해결되었고, 무엇 때문에 이때 이렇게 역전이를 느꼈지? 왜 내 감정이 올라왔지? 왜 이렇게 화가 났지? 뭐 이런 거. 내가 그때 왜 마음이 아팠는지 이런 거 들여다보는 거 같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거지요.”(참여자 4)

주제 2. 자기 반성하기

자신의 역전이 감정을 인식하였을 때 수퍼비전을 하고 있는 그 순간, 혹은 수퍼비전이 끝난 후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에 대해서 되뇌이며 반성하고 있었다.

“자기 반성을 많이 하는 거죠. 내가 또 이 부분에서 그랬구나...”(참여자 1)

주제 3.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기

역전이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없앨 수 있는 성질의 감정이 아니다. 따라서 역전이를 느끼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감싸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한 가지는 감정에 대해서 솔직한 게 필요한 거 같아요. 그 이제 내 감정에 대한 인식? 저 사람한테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아, 내가 무시 받았다고 느끼는구나~ 이런 걸 규정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고”(참여자 7)

범주 4. 자문

주제 1. 동료 전문가에게 조언 구하기

초심 슈퍼바이저들은 슈퍼비전을 하기 전, 혹은 슈퍼비전에서의 역전이 감정을 느꼈을 때 동료 슈퍼바이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공개 사례의 경우 주슈퍼바이저로 참여하는 교수님들과 자신의 감정에 대하여 나누고 있었다.

“물어봐요 저의 동료 상담자들에게. 그들 모두 슈퍼바이저니까.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고 경험이 많은 동료에게 물어보지요.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을 하는 거죠.”(참여자 3)

주제 2. 개인분석 받기

초심 슈퍼바이저는 역전이를 조금 더 이해하고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기 위하여 개인 분석을 받고 있었다.

“내 스스로 이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내 안에. 아직도 내가 부족하구나... 음... 내 문제는 내가 전보다 더 내 안에 스스로 해결하고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아직도 나도 갈 길이 멀구나~ 나두 개인분석을 받아야 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요.”(참여자 6)

범주 5. 자기 돌봄

슈퍼비전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쉬는 것이다. 충분히 쉬는 것, 걷는 것, 기도하기 등을 하면서 자신을 돌보고 있었고, 슈퍼비전의 내용이나 슈퍼바이저로서 느꼈던 감정을 일기 쓰듯 기록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공부도 하고 있었다.

주제 1. 휴식 취하기

슈퍼비전을 하기 전이나 하고 난 후 경험하는 역전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초심 슈퍼

바이저는 걷거나 몸의 편안함을 유지하는 것, 여유를 가지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었다.

“수퍼비전이 끝나면은 나 집으로 바로 안 들어가요. 그냥 바람 부는데서 머리를 식히고 그리고 들어가요. 머리를 비우고 산책을 해. 산책을 하고 그러면 어디가 바람이 잘 들어오고 몇 시에 가면 어디가 노을 저서 딱 보기 좋고 이런 것들을 빠삭하게 다 알고 있거든요. 저녁이 되면 항상 시간을 내서 거기를 걸어요. 수퍼비전 하기 전에 한 30분 정도 이렇게 휴식을 하거나, 혼자만의 바람을 쏘이거나 하는 건 그것이 참 좋은 거 같아요.”(참여자 7)

주제 2. 기록하기

초심 수퍼바이저는 상담을 기록하는 것처럼, 수퍼비전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이후 수퍼비전의 연결성을 가지려 하고 있었다. 또한 수퍼비전에서 느꼈던 자신의 역전이 감정을 일기 쓰듯 기록하며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그 사람하고 앞으로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느낀 거 그 상담자한테 다 하는 상상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제가 또 다 적거든요. 꼼꼼하게 다 적어요 꼼꼼하게. 나중에 만나면 이 얘기 다 해야지~~ 이러면서 다 적어요. 내가 그 상담자한테 하는 얘기를 막 상상을 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좀 내가 좀 쪼잔한거 같구... 그러다보면 뭐 그 선생님이 좀 이해가 되는 거지요.”(참여자 2)

V. 논의 및 제언

수퍼비전은 수퍼바이저의 발달과 상담 성과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지만, 이론적인 방향성과는 무관하게 나타나는 수퍼바이저의 역전이를 제대로 다루지 않을 경우 수퍼바이저와의 관계나 수퍼비전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만일 수퍼바이저가 자신의 역전이를 인식하고 적절하게 다루며 균형을 찾아간다면 수퍼바이저의 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고(Grant, Schofield, & Crawford, 2012), 수퍼바이저가 만나는 내

답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다(Grant, & Crawley, 2002; Grant, 2006; McKinney, 2000).

본 연구는 상담으로서의 전문가이지만 수퍼비전 경험이 많지 않은 초심 수퍼바이저들이 수퍼비전에서 나타나는 역전이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시행되었다. 현상학적 질적 연구를 통해 초심 수퍼바이저들의 역전이 대처를 알아본 결과 5가지의 범주와 12 가지의 주제로 나타났다.

첫째, 초심 수퍼바이저는 역전이를 느낄 때 자기개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퍼바이저가 수퍼바이저에게 자신의 역전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수퍼바이저는 상담자이면서, 동시에 수퍼바이저가 실시한 상담에 대한 평가를 하며 통제자의 역할을 하기에 수퍼비전에서 자연스럽게 위계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수퍼바이저 입장에서는 자신의 실수를 스스로 보이고 상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기에 부정적 정서가 유발되기 쉽다(조윤진, 이은진, 유성경, 2014). 그러므로 수퍼비전에서 보여지는 수퍼바이저의 태도를 수퍼바이저가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수퍼비전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초심 수퍼바이저는 수퍼비전 회기 내에서 경험되어지는 자신의 역전이 감정을 수퍼바이저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퍼바이저의 피드백을 거부하거나 수퍼비전으로부터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경우, 자신의 옳음을 강조하는 경우, 또는 수퍼바이저 개인의 문제가 건드려진 경우 역전이를 경험하였다. 초심 수퍼바이저들은 감정을 느낀 즉시 표현하는 경우가 있었고 혹은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 후 표현하기도 하였다. 즉시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바로 자신의 감정표현을 하였지만, 감정을 좀 더 오래 바라보고 수퍼바이저가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들 때에는 자신의 감정을 시간이 지난 후 표현하였다. 이러한 자기개방은 수퍼바이저가 수퍼비전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을 때 자신의 역전이를 수퍼바이저에게 개방하였다는 기존의 연구들(Grant, Schofield, & Crawford, 2012; Skjerve, Nielsen, Jacobsen, Gullestad, Hasen, Reichelt, Rønnestad, & Torgersen, 2009)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Bang과 Park(2009)의 연구에서도 수퍼바이저가 자신에게 느껴지는 역전이를 수퍼바이저에게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어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수퍼바이저가 경험하는 역전이의 원인은 수퍼바이저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있다. 수퍼바이저의 대인 관계와 수퍼바이저의 미해결 문제를 포함하여 이러한 반응들이 다양한 역전이를 일으키므로, 이러한 자기 개방은 수퍼비전 관계에 긍정적일 수 있다. 수퍼바이저의 자기 개방은 긍정적(Hayes, & Gelso, 2001)이라는 의견과, 수퍼비전에 미치

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는(Grant, Schofield, & Crawford, 2012) 엇갈린 결과가 있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초심 슈퍼바이저들이 자기 개방을 함으로써 슈퍼바이지와 관계가 원활해졌다고 여기는 경우들이 많았다. 전정운과 한재희(2012)의 연구에서도 초심 슈퍼바이저는 슈퍼바이지를 향한 역전이 감정을 서로 주고 받는 과정을 통하여 슈퍼바이저로서 발달하고 있었다고 하여 본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충분히 좋은 슈퍼비전 관계가 슈퍼바이지를 성장시키는 것이므로, 슈퍼비전 관계는 단순하게 기술을 습득하도록 가르쳐주고 배우는 것 뿐만 아니라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중요하다(조운진, 이은진, 유성경, 2014; Haynes, Corey, & Moulcon, 2006). 따라서 교육자나 평가자의 역할만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내보임으로써 좋은 슈퍼비전 관계를 가지려 애쓰는 슈퍼바이저의 노력은 자신에 대한 솔직함이라 할 수 있다.

때로는 자신의 역전이 감정이 올라왔을 때 거리를 두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거리두기는 소극적인 공격이면서 기다림이다. 초심 슈퍼바이저들의 거리두기는 더 이상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은 마음, 반대로 한 발짝 물러나 슈퍼바이지 스스로 알아채고 깨닫도록 기다리는 것이다.

둘째, 초심 슈퍼바이저들은 역전이를 느낄 때 자신의 감정을 객관화 시키려 노력하고 있었다.

상담에서 슈퍼바이지가 경험하는 역전이와 슈퍼비전에서 슈퍼바이저가 경험하는 역전이, 그리고 슈퍼비전 관계에서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가 서로 얽혀 있는 전이와 역전이는 매우 복잡하다. 슈퍼바이지에게 과도하게 동일시를 느끼거나 슈퍼바이지가 빨리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역전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Walker, & Gray, 2002). 따라서 슈퍼비전에서 느껴지는 슈퍼바이저 자신의 역전이를 다루는 일은 조심스럽고 세심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슈퍼비전에서 슈퍼바이저가 슈퍼바이지의 역전이를 다루어 주었을 때 자기이해가 높아지지만, 이러한 역전이를 다루는 일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슈퍼바이저는 슈퍼바이지의 슈퍼비전 및 분석가로서의 이중 역할에 관한 딜레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슈퍼비전이 개인 분석이 되어서는 안 되며 슈퍼비전과 개인 분석 사이의 경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분명히 심리학자 윤리 원칙에 의해 금지된 상반되는 이중 역할 관계를 초래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McNeill, & Worthen, 1989). 본 연구에서 초심 슈퍼바이저들이 사례에만 집중하였던 것은 자칫 슈퍼비전이 자칫 슈퍼바이지에 대한 개인분석으로 흐를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상담에서 슈퍼바이지의 태도가 내담자에게 영향을 주고 있을 때, 슈퍼바이지에 대한 탐색이 과도할 경우, 내담자의 사례보다 슈퍼바이지가 중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슈퍼비전과 관련하여 가장 논쟁의 여지가 있는 질문 중 하나는 슈퍼비전과 개인 분석의 경계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Zaslavsky, Nunes, & Eizirik, 2005). 슈퍼비전과 치료적 관계 사이의 경계가 명확해야 하므로 슈퍼비전과 분석 사이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만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슈퍼비전의 중단도 고려해야 한다(Sattar, Pinals, & Gutheil, 2004). 이처럼 분석가로서의 ‘감수성’과 슈퍼바이저로서의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분석가와 슈퍼바이저의 기능을 분리하는 연습은 매우 중요하다(Zaslavsky, Nunes, & Eizirik, 2005). 슈퍼비전에서 역전이라고 판단되었을 때 개인 상담을 권유하고 슈퍼비전과 상담을 구분하였다는 Bang과 Park(2009)의 연구 결과처럼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개인 분석으로 흐름 염려와 슈퍼비전에 집중하는 것의 경계를 고민하고 분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심 슈퍼바이저들은 슈퍼바이저의 입장이 되어 이해하려 하였다. 이것은 역지사지하는 것으로 자신의 지나온 길을 돌아봄으로 슈퍼바이저를 한 층 더 깊은 수준으로 공감하는 것이다. 슈퍼바이저의 입장이 되어 보았을 때 슈퍼바이저의 감정과 행동이 이해되고, 부정적으로 치닫던 슈퍼바이저의 역전이는 자연스럽게 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역지사지하는 것은 감정에 함께 얽히지 않으려 한 발자국 물러나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셋째, 초심 슈퍼바이저들은 역전이 감정을 느끼는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수용하려 하고 있었다.

역전이는 슈퍼바이저를 향한 슈퍼바이저의 반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역전이의 해결은 자기 인식(Tobin, 2003; Winstone, & Gervis, 2006) 이라고 할 만큼 자기 인식은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다. 자신에 대한 깊은 생각과 인식은 역전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데 기본이 되는 능력이기에, 숙련된 슈퍼바이저는 자신의 역전이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반면(Hayes, McCracken, & Hill, 1998), 역전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슈퍼바이저는 자신의 감정적인 반응을 알지 못하여 슈퍼바이저의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감정을 느끼는 것과 감정을 느끼는 자신을 인식하는 것은 다르다. 그러므로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는 중요하다. 초심 슈퍼바이저들은 슈퍼비전에서 역전이 감정을 느낄 때면 역전이 감정을 느끼는 자기를 인식하고 역전이 감정이 자기로부터 온 것인지, 슈퍼바이저로부터 파생된 감정인지 상위 인지를 하고 있었다. 자신의 역전이를 인식하며 항상 같은 부분에서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자신을 반성하며 슈퍼비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고 있었다. 오효정과 최한나(2015)의 연구에서 초심 슈퍼바이저들이 슈퍼비전의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자기성찰을 하였던 것과 유사하며, 슈퍼바이저가 슈퍼바이저에

대해 지나친 감정을 경험할 때, 이 감정을 둘러싼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검토해 본다는 기존의 연구(Young, Lambie, Hutchinson, & Dyer, 2011)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것은 슈퍼바이저가 슈퍼바이저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뜻한다(Prasko, & Vyskocilova, 2010). 특히 감정적으로 채워진 과거의 기억은 현재의 어떤 것에 의해 나타날 수 있으며 그 때와 유사한 방식으로 반응하게 될 것이므로(Prasko, Diveky, Grambal, Kamaradova, Mozny, Sigmundova, Slepecky, & Vyskocilova, 2010), 이러한 역전이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면 역전이에 대처할 수 있게 되는 적절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초심 슈퍼바이저들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슈퍼비전 장면과 슈퍼바이저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자기반성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슈퍼비전에서 역전이를 인식하였을 때 자기반성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는 기존의 연구들(Grant, Schofield, & Crawford, 2012; Ladany, Constantine, Miller, Erickson, & Muse-Burke, 2000; Prasko, & Vyskocilova, 2010)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있는 그대로의 꾸미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은 슈퍼바이저와 내담자를 선입견 없이 이해하고 수용한다는 것과 같다. 자기 수용은 타인 수용을 가능하게 한다(고윤희, 박성현, 2014). 그러므로, 슈퍼바이저는 어떤 것을 인식 할 때마다 현재의 인식과 과거의 경험을 비교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자기 인식을 하고 있을 때 역전이는 훌륭한 치료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Tobin, 2003). 초심 슈퍼바이저들은 자신의 역전이 감정을 인식하고 반성하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즉, 아무런 판단과 자책을 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자신의 역전이 감정을 자세히 바라보고 감정의 근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역전이 감정으로 인한 영향도 고려하고 있었다. 그 결과 한 인간으로서 부족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껴안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욱 성숙되고 완성 되어감을 말하였다. 슈퍼바이저가 역전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서적 수용이 필요하므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수용할 것을 주장한 전수경(2016)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넷째, 초심 슈퍼바이저는 역전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문구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전이는 모든 전문 도구 중 가장 개인적인 것으로(Zaslavsky, Nunes, & Eizirik, 2005), 역전이를 유발하는 슈퍼바이저의 문제는 무수히 많다.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서 알려진 것으로는 슈퍼바이저의 원가족, 부모역할과 책임감, 전문가로서의 자기-개념, 성역할, 충족되지 못한 욕구(김지은, 2005) 등이다. 연구 참여자인 초심 슈퍼바이저들

이 경험하는 역전이의 원인은 자신의 원가족과 유사한 관계의 반복이나, 자신의 성향이나 신념과 매우 유사하거나 반대로 상이할 경우, 과거의 모습이 떠오르는 상황에 마주하게 될 때 등 이었다. 가족문제가 역전이의 원인으로 밝혀진 기존의 연구들(Hayes, McCracken, & Hill, 1998; Liaboe, & Guy, 1987)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역전이 현상을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위하여 제 3 자 즉, 전문가의 시각이 필요할 수 있다(Hayes, McCracken, & Hill, 1998).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동료와의 논의는 가치 있는 일이다. 초심 수퍼바이저들은 수퍼비전에서의 역전이에 대하여 대부분 동료 수퍼비전을 하고 있었고, 이는 기존의 연구들(Grant, Schofield, & Crawford, 2012; Ladany, Constantine, Miller, Erickson, & Muse- Burke, 2000; Rowan, & Jacobs, 2002; Winstone, & Gervis, 2006)과 일치하며, 동료 수퍼비전과 자기 수퍼비전 등 끊임없이 배우는 수퍼바이저의 모습(전수경, 2016)과도 일치한다. 이러한 정기적인 동료들과의 논의는 초심 수퍼바이가 어려운 경우에 처하였을 경우나 역전이로 인하여 객관성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Sattar, Pinals, & Gutheil, 2004). 이러한 자문 구하기는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동료들 모두 상담전문가이기 때문에 초심 수퍼바이저들에게 매우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수퍼비전에 대한 수퍼비전도 역전이에 대처하는 방법이며(Grant, Schofield, & Crawford, 2012), 초심 수퍼바이저가 발달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전정운과 한재희(2012)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반복되는 역전이가 우려될 경우 개인 분석이 도움이 된다고 하였듯(Sattar, Pinals, & Gutheil, 2004), 본 연구에서 초심 수퍼바이저들도 현재 개인 분석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개인 분석은 자신의 역전이를 확인하고 관리하는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초심 수퍼바이저들은 자기 돌봄을 하고 있었다.

타인을 돌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부터 돌보아야 한다. 역전이에 대하여 제대로 대처해야 소진되지 않을 수 있다(최명균, 2012). 초심 수퍼바이저들은 자기만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자신을 돌보고 있었는데, 역전이 감정이 느껴질 경우 사례에서 물러나 시간을 가지기, 기도하기, 산책하기, 그리고 육체를 편안하게 하기 등 자신만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숨고르기를 하고 있었다. 자신의 종교에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은 초심 수퍼바이저의 전문성과 영성의 균형에 대해 말한 전정운과 한재희(2012)의 연구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전수경(2016) 역시 자신의 감정적 한계를 인식하고 소진되지 않도록 업무의 배분이나 종교적 활동을 제안하였는데, 명상이나 마음 챙김, 그리고 영성과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성장을 도울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자기만의 시간은 신체의 긴장을

낮추고 영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며 어떠한 사실이나 감정으로부터 물러서서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한다.

또 다른 대처방법으로는 자신의 수퍼비전을 기록하는 일이다. 수퍼비전의 내용이나 내담자의 특징, 수퍼바이저의 행동을 기록하여 다음회기의 수퍼비전에서 연결성을 가지려는 경우이다. 자신의 감정을 써내려가는 경우도 있었다. 쓰기 작업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게 되면 수퍼바이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학위와 상담의 경험이 높을수록, 교육 분석 경험이 많을수록, 정서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역전이 관리 능력이 높아진다는 연구들(김지은, 조성호, 2006; 장세미, 1999)을 볼 때 초심 수퍼바이저들이 여러 방법을 시도하며 역전이 대처를 하는 것은 수퍼바이저로서 발달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살펴볼 때 숙련된 상담자로서, 수퍼바이저로서 정신적, 육체적 안녕을 위하고, 소진되지 않도록 건강하게 역전이에 대처 할 수 있도록 자신을 돌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는 초심 수퍼바이저들이 수퍼비전 장면에서 경험하는 역전이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초심 수퍼바이저들은 상담을 넘어 수퍼비전에서의 역전이를 인식하고 기원을 탐색하며 관리해 나가는 과정을 수퍼바이저로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여기고 있었다. 자신의 역전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 그러면서도 자신의 역전어로 수퍼바이저에게 미칠 부정적인 면을 고려하여 나름의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은 숭고한 일이다. 이것은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상담자의 모습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수퍼바이저의 역전이 대처를 다루었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상담자의 역전이를 다룬 연구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에도 수퍼바이저의 역전이 대처에 대하여 다룬 연구는 드물었으며, 수퍼바이저로서의 발달이나 상담 전문가로서 다른 변인의 일부로 역전이를 다루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수퍼바이저들이 역전이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경험적 연구를 하였는데 의의를 둘 수 있으며, 수퍼바이저로서의 발달과 교육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둘째, 수퍼바이저들 가운데 초심 수퍼바이저의 역전이 대처를 알아본 것에 의의가 있다. 숙련된 수퍼바이저들은 수퍼비전에서 자신의 역전이에 대하여 성숙하게 대처하고 있는 반면, 이제 막 수퍼비전을 시작하게 된 초심 수퍼바이저들이 어떻게 자신의 역전이에 대처 하고 있는지 알아본 연구는 드물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초심 수퍼바

이저들의 역전이 대처 방법을 알아보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심 슈퍼바이저들의 역전이 대처에 대하여 슈퍼바이저로서 발달단계에 따른 각기 다른 슈퍼바이저들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는데 연구의 아쉬움이 남는다. 슈퍼바이저로서 경험이나 경력에 따라 역전이 대처를 어떻게 하는지, 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연구가 시행된다면, 초심 슈퍼바이저들이 역전이 경험을 할 때 자신만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아닌 보편적인 어려움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또한 숙련된 슈퍼바이저들의 대처방법을 배우고 적용해갈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일곱 명의 초심 슈퍼바이저를 인터뷰하고 그 내용이 포화될 때 까지 인터뷰와 글쓰기를 하였는데 더 많은 참여자를 선정하였다면 또 다른 내용이 나왔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수를 늘리고, 슈퍼비전 경력에 따른 구분을 한다면 슈퍼바이저의 역전이 대처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참고문헌

- 강소영, 한미선, 황숙양(2008). 상담자의 자기애적 특성이 상담과정에 미치는 영향: 역전이 관리와 역전이 행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20(4), 947-962.
- 고윤희, 박성현(2014).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 과정에 대한 연구: 자기성찰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4), 805-839.
- 김명화, 홍혜영(2017). 초심 슈퍼바이저의 슈퍼비전 교육 필요성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2), 573-594.
- 김준혜, 안현의(2013). 상담자 발달수준, 마음챙김 및 역전이 관리능력과의 관계. 인간이해, 34(2), 95-109.
- 김지은(2005). 부정적 역전이의 발생과정: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통한 분석.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은, 조성호(2006). 역전이 행동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8(1), 117-136.
- 김택준, 신희천(2016). 역전이 관리능력이 작업동맹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2), 291-309.
- 방기연(2002). 상담 슈퍼바이저 교육에 대한 고찰. 연세교육연구, 15(1), 119-131.
- 배성만, 김순영, 주은선(2015). 상담자의 상담경력에 따른 상위인지 자각과 포커싱적 태도가 역전이 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6(2), 157-178.
- 소수연, 장성숙(2014). 숙련된 슈퍼바이저의 슈퍼비전 수행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26(2), 222-253.
- 오효정, 최한나(2015). 초보 슈퍼바이저가 겪는 어려움과 대처방법. 상담학연구, 16(5), 75-94.
- 이경윤(2016). 상담자의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소진의 관계. 역전이 관리능력의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남인(2017). 현상학과 질적연구. 한국심리측정평가학회 하계질적연구 방법론 워크숍 자료집.
- 임고운, 김지현(2008). 상담자 발달수준 및 역전이 활용과 상담성과. 상담학연구, 9(3), 987-1006.
- 장세미(1999). 상담자의 특성, 역전이 관리능력 및 상태불안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 전수경(2016). 상담심리전문가들이 경험을 통해 지각된 숙련상담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 *가족과 상담*, 6(1), 23-41.
- 전정운, 한재희(2012). 초심 슈퍼바이저의 전문성 발달과정 연구. *상담학연구*, 13(6), 2607-2624.
- 조윤진, 이은진, 유성경(2014). 상담심리치료 슈퍼비전에서 슈퍼바이저의 부정적인 경험의 변화 과정. *한국심리학회지*, 26(4), 841-877.
- 최명균(2012). 노인상담에서 상담자의 역전이 경험. 백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하 정(2016). 상담전문가의 역전이 관리 과정. *한국심리학회지*, 28(2), 311-337.
- Bang, K., & Park, J.(2009). Korean supervisors' experience in clinical supervisio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7(8), 1042-1075.
- Burwell-Pender, L., & Halinski, K. H.(2008). Enhanced awareness of countertransference. *Journal of Professional Counseling, Practice, Theory, & Research*, 36(2), 38-51.
- E. G. Guba and Y. S. Lincoln,(1981) *Effective evaluation: Improving the usefulness of evaluation results through responsive and naturalistic approaches*, Jossey-Bass.
- Falender, C. A. & Shafranske, E. P.(2004). *Clinical supervision: A competency-based approach*.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Giorgi, A. (Ed.).(1985).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Pittsburgh, PA: Duquesne University Press.
- Grant, J.(2006). Training counselors to work with complex clients: Enhancing emotional responsiveness through experiential methods.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45(3), 218-230.
- Grant, J., & Crawley, J.(2002). *Transference and projection: Mirrors to the self*. McGraw-Hill Education (UK).
- Grant, J., Schofield, M. J., & Crawford, S.(2012). Managing difficulties in supervision: Supervisors' perspectiv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9(4), 528-541.
- Hayes, J. A., & Gelso, C. J.(2001). Clinical implications of research on countertransference: Science informing practic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 57(8), 1041-1051.
- Hayes, J. A., McCracken, J. E., McClanahan, M. K., Hill, C. E., Harp, J. S., & Carozzoni, P.(1998). Therapist perspectives on countertransference: Qualitative data in search of a the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4), 468-482.
- Haynes, R., Corey, G. & Moulcon, P.(2006). 상담 및 조력전문가를 위한 슈퍼비전의 실제. *Clinical supervision in the helping professions: A practical gride*. (김창대, 유성경, 김형수, 최안나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저 2002년 발행).
- Hofsess, C. D., & Tracey, T. J.(2010). Countertransference as a prototype: The development of a measur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7(1), 52-67.
- Jacobs, C.(1991). Violations of the supervisory relationship: An ethical and educational blind spot. *Social Work*, 36(2), 130-135.
- Ladany, N., Constantine, M. G., Miller, K., Erickson, C. D., & Muse-Burke, J. L.(2000). Supervisor countertransference: A qualitative investigation into its identification and descrip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1), 102-115.
- Liaboe, G., & Guy, J. D.(1987). Assessing the current stereotype of the psychotherapist's family of origin relationships. *Psychotherapy in Private Practice*, 5(2), 103-113.
- McNeill, B. W., & Worthen, V.(1989). The parallel process in psychotherapy supervision.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0(5), 329-333.
- Nelson, M. L., & Friedlander, M. L.(2001). A close look at conflictual supervisory relationships: The trainee's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4), 384-395.
- Prasko, J., & Vyskocilova, J.(2010). Countertransference during supervision in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Activitas Nervosa Superior Rediviva*, 52(4), 251-260.
- Prasko, J., Diveky, T., Grambal, A., Kamaradova, D., Mozny, P., Sigmundova, Z., & Vyskocilova, J.(2010). Transference and countertransference in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Biomedical Papers*, 154(3), 189-197.
- Quarto, C. J.(2003). Supervisors' and supervisees' perceptions of control and conflict in counseling supervision. *The clinical supervisor*, 21(2), 21-37.

- Rossberg, J. I., Karterud, S., Pedersen, G., & Friis, S.(2008). Specific personality traits evoke different countertransference reactions: an empirical study.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6(9), 702-708.
- Rowan, J., & Jacobs, M.(2002). *The therapist's use of self*. Open University Press (UK).
- Sattar, S. P., Pinals, D. A., & Gutheil, T. G.(2004). Countering countertransference, II: Beyond Evaluation to Cross-Examin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Psychiatry and the Law*, 32(2), 148-154.
- Skjerve, J., Nielsen, G. H., Jacobsen, C. H., Gullestad, S. E., Hasen, B. R., Reichelt, S., Rønnestad M. H., & Torgersen, A. M.(2009). Nondisclosure in psychotherapy group supervision: The supervisor perspective. *Nordic Psychology*, 61(4), 28-48.
- Tobin, D. J.(2003). Countertransference and the hidden client in counselor training and supervision. *The Journal of the Pennsylvania Counseling Association*, 5, 19-29.
- Van Wagoner, S. L., Gelso, C. J., Hayes, J. A., & Diemer, R. A.(1991). Countertransference and the reputedly excellent therapist.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28(3), 411-421.
- Vyskocilova, J., & Prasko, J.(2013). Countertransference, schema modes and ethical considerations in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Activitas Nervosa Superior Rediviva*, 55(1-2), 33-39.
- Walker, J. A., & Gray, L. A.(2002). Categorizing supervisor countertransferenc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Psychotherapy Research International Conference, Santa Barbara, CA.
- Watkins Jr, C. E.(2011). Toward a tripartite vision of supervision for psychoanalysis and psychoanalytic psychotherapies: Alliance, transference-countertransference configuration, and real relationship. *The Psychoanalytic Review*, 98(4), 557-590.
- Winstone, W., & Gervis, M. (2006). Countertransference and the self-aware sport psychologist: Attitudes and patterns of professional practice. *The Sport Psychologist*, 20(4), 495-511.
- Young, T. L., Lambie, G. W., Hutchinson, T., & Thurston-Dyer, J.(2011). The

integration of reflectivity in developmental supervision: Implications for clinical supervisors. *The Clinical Supervisor*, 30(1), 1-18.

Zaslavsky, J., Nunes, M. L. T., & Eizirik, C. L.(2005). Approaching countertransference in psychoanalytical supervision: A qualitative investigatio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86(4), 1099-1131.

〈Abstract〉

Coping with the Countertransference of Novice Supervisors

Kim, Myong-hwa · Hong, Hye-young

Hanyang Cyber University · Myongji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how novice supervisors would cope with the countertransference experienced in their supervision. For this, the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by purposively sampling seven novice supervisors with supervision experiences for five years or less. The Giorgi's phenomenological method emphasizing the description of phenomenon was applied to the collected data. To secure the limitations of qualitative researches such as reliability and validity, the stages of applicability, consistency, realistic value, and neutrality were gone through. In the results, the novice supervisors' methods to cope with the countertransference in their supervision were divided into five categories such as opening themselves, objectifying, self-awareness and accepting it, asking for advices, and self-care. The novice supervisors' coping with the countertransference experienced in their supervision would mean the growth as a supervisor.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sed for the supervision and the improvement of relationship with supervisor, which i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Key Words: Novice Supervisor, Countertransference

HIV 감염인의 사회적 낙인이 자기낙인과 내면화된 수치심을 매개하여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권경애* · 홍혜영**
에이즈 상담센터 · 명지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HIV 감염인의 사회적 낙인이 자기낙인과 내면화된 수치심을 매개로하여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247명의 HIV 감염인이며, 자료 분석을 위해 기술 분석 및 상관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SPSS와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첫째, 사회적 낙인과 자기낙인, 자기낙인과 내면화된 수치심,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살사고는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낙인은 자기낙인을 매개로 하여 자살사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낙인은 내면화된 수치심을 매개로 하여 자살사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적 낙인과 자살사고 사이에서 자기낙인과 내면화된 수치심은 이중매개효과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HIV 감염인의 사회적 낙인, 자기낙인, 내면화된 수치심이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확인했고 HIV 감염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낙인과 자기낙인의 존재만으로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면화된 수치심도 함께 가지고 있을 때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외에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핵심어: HIV 감염인, 사회적 낙인, 자기 낙인, 내면화된 수치심, 자살사고, 매개효과

* 본 연구는 권경애(2018)의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및 요약한 논문임.

** 교신저자: 홍혜영(hyhong@mju.ac.kr)

■ 게재 신청일 : 2019년 8월 1일 ■ 최종 수정일 : 2019년 8월 24일 ■ 게재 확정일 : 2019년 8월 25일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대다수의 사람들이 AIDS(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후천성면역결핍증)라고 하면 죽는 줄 알고 있고, AIDS 환자라면 윤리적 일탈 행위자로 낙인을 찍으며, 더욱이 감염전파의 위험을 근거로 사회로부터 격리와 감찰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감염인은 의학적으로 만성감염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낙인과 차별로 인해 기본권인 행복을 추구하기 어렵다(김경하, 2013).

사회적 낙인 속에 HIV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그들의 신체기능 뿐 아니라 자존감까지도 떨어뜨리게 되고(김경하, 2008), HIV 감염인의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박영숙, 오윤희, 2005; 유미혜, 2003; 김연미, 2003). 보수적인 문화를 가진 한국의 HIV 감염인은 다른 나라보다 사회적 낙인을 더 크게 경험한다(유미혜, 2002).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대비 HIV 감염인이 0.02%에 불과하므로 국민들 대부분이 HIV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질병관리본부, 2015), 이렇게 사회적 낙인은 HIV 감염인에게 많은 부분에서 부정적 정서를 갖게 하는데, 그중 가장 치명적인 것은 자살과 관련된 사고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낙인은 지금까지 한국의 HIV 감염인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이 자살인 것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권관우, 이경무, 변진옥, 2001; 박영숙, 오윤희, 2005). 통계청의 2015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201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가 27.3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자살 사망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집계되었는데(통계청, 2015), 그중에서도 HIV 감염인 자살사고율 58.1%는 일반 성인인구의 자살사고율 15.0%(질병관리본부, 2008)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선행연구(Beckett & Shenson, 1993; Moneyham et al., 2005)에서도 HIV 감염인이 비감염인보다 자살사고율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선행연구(권관우, 이경무, 변진옥, 2001; 박영숙, 오윤희, 2005)를 통하여 사회적 낙인이 HIV 감염인의 자살사고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적 낙인을 경험하는 개인의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일반적으로 HIV 감염인이 사회적 낙인을 경험하지만 어떤 HIV 감염인은 자살사고가 증가하고 어떤 HIV 감염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사회적 낙인을 받아들이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사회적 낙인을 다르게 지각하는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선행 연구(Corrigan & Watson, 2002; Major & O'Brien, 2005)는 각 개인이 사회적 낙인을 단순히 경험하는 것보다 경험한 사회적 낙인을 개인 내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규정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였고 이런 경험을 자기 내부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결합시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자기화한 것을 자기낙인이라고 하였다.

사회적 낙인과 자기낙인은 분리되는 별도의 개념이며(Corrigan 2004), Bathje와 Pryor(2011)는 자기낙인이 사회적 낙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회적 낙인을 지지할 때 자기낙인이 발생된다고 하였다. Vogel, Bitman, Hammer와 Wade(2013)의 연구에서는 첫 번째 시점에서 사회적 낙인을 측정하고 그로부터 3개월 후에 자기낙인의 발생을 측정하여 실제 사회적 낙인이 시간의 경과 후 자기낙인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사회적 낙인을 경험하게 되면 이것은 여러 단계를 거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기낙인으로 자리 잡게 되지만(Corrigan et al., 2011; Eisenberg et al., 2009; Pasupuleti, 2013; Scheff, 1966; 박옥남, 2016 재인용), 사회적 낙인에 노출된 모든 사람들이 자기낙인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며, 사회적 낙인을 내면화하여 자신의 상을 부정적이게 선택하여 인식하는 사람만이 자기낙인을 가지게 된다. 자기낙인은 다양한 부정적 정서와 연관이 높고, 삶의 만족도를 낮추며, 의욕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자기낙인이 높은 경우 이것이 자살사고를 증가시키게 되는 것이다(Heckman, 2002; Nock et al., 2008; 권윤형, 2009).

한국 HIV 낙인 지표 조사 공동 기획단(2017)은 한국의 HIV 감염인들이 매우 높은 수준의 자기 낙인을 경험하고 있으며 스스로에게 느끼는 깊은 수치심, 죄책감, 자기혐오의 감정은 이들이 부정적 낙인을 내면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다른 나라에서의 조사 결과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한 심각한 수준의 자기낙인은 감염인들이 이러한 불명예의 굴레 속에서 낮은 자존감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윤리적 차원에서의 자기 격하를 경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한국 HIV 낙인 지표 조사 공동 기획단, 2017).

사회적 낙인은 자살사고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자기낙인에도 영향을 주어 사회적 낙인을 경험한 HIV 감염인이 자기낙인을 가진 경우 자살사고를 높이는데 영향을 준다(Corrigan, 1998; Corrigan, 2004; Heckman, 2002; Nock et al., 2008; 권윤형, 2009). Dickerson과 Gruenewald 및 Kemeny(2004)에 의하면 부정적인 타인 지각, 즉 사회적 낙인이 부정적인 자기지각인 자기낙인으로 내면화될 때 수치심이 유발된다고 보고했으며 부정적 자기평가는 수치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정서라고 했다.

Ablon(2002)의 연구에서는 특별히 의료적 상황으로 인해 낙인을 받게 되는 대상은 분노, 수치심, 죄책감 등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손영민, 정우정(2017)은 뇌전증(간질) 환자들에 대한 연구에서 뇌전증을 경험하고 있는 환자들은 자신의 병이 드러날 때마다 죽고 싶을 정도로 높은 수치심을 경험하고 있으며, 자신의 병을 자신의 약점으로 인식하며 병 자체와 수치심을 연결 짓고 있고, 매일 약을 복용하는 일이 이런 병에 대한 수치심을 꾸준히 상기시키는 일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뇌전증의 경우처럼 HIV/AIDS도 질병에 대한 낙인이 매우 심한 질환이며 매일 꾸준히 약을 복용해야하는 질환으로 뇌전증 환자의 심리적 흐름과 HIV 감염인의 심리적 흐름은 많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유추된다.

김민주(2016)는 연구에서 사회적 낙인의 속성 중 책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낙인의 대상이나 집단이 사회적 낙인을 받는 이유가 선천적이거나 개인의 통제범위 밖에 있는 이유 때문에 낙인이 되는 경우 사람들은 낙인 대상자를 희생자로 인식하여 경미한 낙인을 주지만, 낙인을 받는 이유가 개인이 통제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속성을 통제하는데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경우 획득 낙인(achieved stigma)의 대상이 되어 윤리적인 책임을 부과하여 낙인 대상에게 강도 높은 사회적 비난을 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HIV의 감염의 경우 주로 성관계를 통한 감염이 일반적이므로 이것은 개인이 통제 가능한 성에 대한 문제를 통제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여겨져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하며 지속적인 사회적 비난을 경험하는 것은 개인에게 내면화된 수치심을 더욱 쉽게 갖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Lewis(1971)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자기의 모습이 긍정적이지 못한 것에서 온 부정적 감정으로 전체적인 자기가 문제라고 느끼는 경험이라고 하였고, 강유선(2010)은 수치심 정서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적절감, 무가치감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있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내면화된 수치심을 가진 사람은 수치심을 유발할 상황이 아닐 때에도 수치심을 경험하게 된다(Goss et al., 1994). 강민철 외(2013)의 연구에서는 내면화된 수치심은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자신을 형편없다고 생각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이러한 생각과 느낌은 자신에 대한 공격성으로 이어져 자살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자살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고 하였다. Lester(1997) 및 Wiklander, Samuelsson, Jokinen, Nilsonne, Rylander와 Sberg(2012)의 연구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자살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HIV 감염인에게 있어서 사회적 낙인이 자기낙인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내면화된 수치심에 영향을 주게 되며 모든 경로를 거친 후에 비로소 자살사고

에 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가설과 사회적 낙인이 자기낙인에 영향을 주어 자살사고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 또 사회적 낙인이 내면화된 수치심에 영향을 주어 다시 자살사고에 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 그리고 각 변인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HIV 감염인의 자살사고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로를 밝힘으로써 HIV 감염인의 자살사고를 낮추는데 중요한 자료를 도출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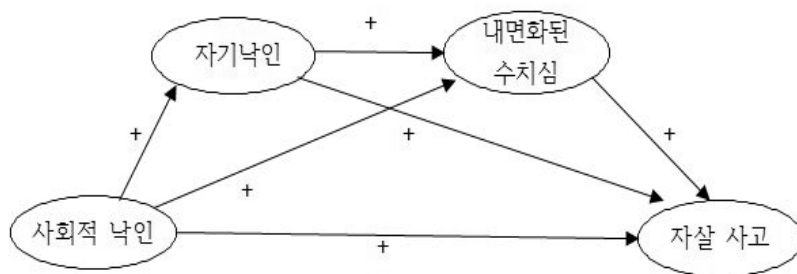
2.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연구가설 1 : HIV감염인의 사회적 낙인, 자기낙인, 내면화된 수치심, 자살사고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 : HIV감염인의 사회적 낙인은 자기낙인을 매개로 하여 자살사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 HIV감염인의 사회적 낙인은 내면화된 수치심을 매개로 하여 자살사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 : HIV감염인의 사회적 낙인은 자기낙인과 내면화된 수치심을 매개로 하여 자살사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1〉 연구 모형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HIV 감염인의 사회적 낙인, 자기낙인, 내면화된 수치심이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HIV 감염인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총 259명이 설문에 응답했고, 무선 표시등의 12개의 설문은 제외하고 247개의 설문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연구의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HIV 감염인이 연구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감염인의 신분이 노출되어 불이익을 경험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설계되어야 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서로 대면하지 않는 모바일 설문 방법과 HIV 감염인 커뮤니티 홈페이지를 이용한 설문 방법을 채택하게 되었다.

또한 지면 설문의 경우는 HIV 감염인 단체의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모바일을 이용한 설문은 눈덩이 수집 방식으로 설문하여 HIV 감염인의 신분노출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2. 연구 측정 도구

가. HIV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 척도

Berger, Ferrans, Lashley(2001)는 HIV에 감염인에 대한 낙인의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8개국 60개 기관들로부터 선발된 318명의 성인을 편의표집 하여 HIV 낙인 척도를 만들었다. 이후에 Bunn 외(2007)는 뉴잉글랜드 지방에서 HIV를 가진 157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척도는 32문항, 4개의 요인으로 분류되며, 개인화된 낙인(1-11번까지의 문항) 11문항, 공개된 관심(12-19번까지의 문항) 8문항, 부정적 자기인식(20-26번까지의 문항) 7문항, 공공 태도에 대한 관심(27-32번까지의 문항) 6문항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낙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본다.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며 (매우 그렇다=4 그렇다=3 아니다=2 전혀 아니다=1)의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예시문항으로는 '내가 HIV/AIDS를 가지고 있다고 친구들에게 말해서 그들을 잃었다.' 등이다. Bunn 외(2007)의 연구에서도 Cronbach's α 는 0.97, 김경하(2013)의 연구에서도 Cronbach's α 는 0.92, 본 연구에서도 전체 Cronbach's α 는 0.95 로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다.

〈표 1〉 사회적 낙인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 구분 및 신뢰도

항 목	문 항	Cronbach's α
전체		0.95
개인화된 낙인	1-11번	0.91
공개된 관심	12-19번	0.85
부정적 자기인식	20-26번	0.87
공공 태도에 대한 관심	27-32번	0.87

나. HIV 감염인에 대한 자기낙인 척도

낙인은 HIV 감염인과 AIDS 환자가 직접 경험하거나 느끼는 낙인수준을 측정하였다. 이것은 비감염인들이 AIDS나 HIV 감염인과 AIDS환자를 대상으로 생각하거나 취하는 태도하고는 다르다. 측정도구로는 HIV stigma scale(Berger et al., 2001)을 사용하였고, 본 척도는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낙인이 높은 것으로 본다.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며 (매우 그렇다=4 그렇다=3 아니다=2 전혀 아니다=1)의 4 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예시문항으로는 'HIV에 대한 주위사람들의 태도 때문에 나 자신이 더욱 나쁜 사람처럼 느껴진다. 본 척도를 사용한 권유행(2009)의 연구에서의 전체 자기낙인의 Cronbach's α 는 0.94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0.95이었다.

다.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

내면화된 수치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Cook(2001)이 개발하고 이인숙과 최해림(2005)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내면화된 수치심척도(Internalized Shame Scale: ISS)를 사용하였다. 이인숙과 최해림(2005)의 요인분석결과에 따르면, ISS는 부적절감(10문항), 공허감(5문항), 자기처벌(5문항), 실수 불안(4문항), 자존감(6문항)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분되어진다. ISS의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0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1 보통이다=2 대체로 그렇다=3 매우 그렇다=4점)의 5점 Likert 척도이며,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예시문항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낀다.' 등이다. 대학생을 표본으로 한 이인숙, 최해림(200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0.93,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0.95이었다.

〈표 2〉 내면화된 수치심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 구분 및 신뢰도

항 목	문 항	Cronbach's α
전체		0.95
부적절감	1,2,3,5,7,8,10,11,12,24번	0.93
공허	23,26,27,29,30번	0.90
자기 처벌	15,17,20,22,25번	0.78
실수 불안	6,13,16,19번	0.75
자존감	4,9,14,18,21,28번	0.86

라. 자살사고 척도

Reynold(1988)가 개발한 자살사고 척도를 신민섭(1993)이 변안하고 박병금(2007)이 총 14 문항으로 보완한 것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7점 Likert 척도(전혀 없다=1, 1~2번=2, 몇 번=3, 가끔=4, 자주=5, 매우자주=6, 거의 매일=7)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사고가 높은 것으로 본다. 예시문항으로는 ‘내가 죽어 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등이다. 또한 본 척도는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병금(2007)의 연구에서는 본 척도의 Cronbach' α 가 0.97, 여지영(2015)의 연구에서는 0.90,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0.94로 나타났다.

III. 연구 결과

1. 기술 통계 및 분석 결과

가. 기술 통계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설문은 남자 240명 여자 7명으로 각각 97.2%와 2.8%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질병관리 본부에서 발표한 2016년 HIV/AIDS 내국인 현황의 누적 감염인 수가 총 11,439명으로 남자 92.8%(10,618명), 여자 7.2%(821명)의 비례와 비교할 때 여자가 다소 작으나 유의미하게 비슷한 비례를 보인 것이다. 설문 연령의 분포를 보면 20대 26명(10.5%), 30대 62명(25.1%), 40대 79명

(32.0%), 50대 54명(21.9%), 60대 18명(7.3%), 70대 이상이 8명(3.2%)의 분포를 보였다. 이는 2016년 질병관리 본부에서 발표한 2016년 HIV/AIDS 내국인 현황이 10대 56명(0.49%) 20대 1,892명(16.54%), 30대 2,467명(21.57%), 40대 3,067명(26.81%), 50대 2,440명(21.33%), 60대 1,106명(9.67%), 70대 이상이 411명(3.59%)의 분포와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HIV 감염 기간은 1년 미만인 14명(5.7%), 1년~5년 사이가 71명(28.7%), 5년~10년 사이가 87명(35.2%), 10년 이상이 75명(30.4%)의 분포를 보였다. HIV 감염지역적인 분포를 보면 서울이 141명 (57.1%) 로 가장 많았고, 경기 42명 (17.0%)등 전국에서 설문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낙인, 자기 낙인, 내면화된 수치심, 자살사고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 모형을 분석하였다. Kline(2011)은 구조방정식의 다변량 정규성은 단변량 정규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고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값은 왜도는 -0.28와 1.06사이, 첨도가 -0.64과 0.42 사이로 Curran, West와 Finch(1996)의 기준을 만족하여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나. 상관분석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두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사회적 낙인은 자기낙인($r=0.87, p < .01$), 내면화된 수치심($r=0.55, p < .01$), 자살사고($r=0.28, p < .01$)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자기낙인은 내면화된 수치심($r=0.61, p < .01$), 자살사고($r=0.34, p < .01$), 사회적 낙인($r=0.87, p < .01$)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내면화된 수치심 또한 사회적 낙인($r=0.55, p < .01$), 자기낙인($r=0.61, p < .01$), 자살사고($r=0.64, p < .01$)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자살사고도 사회적 낙인($r=0.28, p < .01$), 자기 낙인($r=0.34, p < .01$), 내면화된 수치심($r=0.64, p < .01$)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주요 요인간 상관계수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주요 변인 간 상관계수

	사회적 낙인	사회1	사회2	사회3	자기 낙인	자기1	자기2	자기3	내면화된 수치심	수치1	수치2	수치3	자살 사고	사고1	사고2	사고3	
사회적 낙인	1																
사회1	.95**	1															
사회2	.95**	.86**	1														
사회3	.96**	.89**	.89**	1													
자기낙인	.87**	.85**	.84**	.82**	1												
자기1	.85**	.83**	.82**	.81**	.97**	1											
자기2	.83**	.81**	.79**	.78**	.97**	.92**	1										
자기3	.85**	.82**	.83**	.80**	.96**	.91**	.90**	1									
내면화된 수치심	.55**	.54**	.50**	.54**	.61**	.60**	.62**	.55**	1								
수치1	.52**	.51**	.48**	.51**	.57**	.57**	.58**	.51**	.96**	1							
수치2	.54**	.54**	.48**	.52**	.59**	.58**	.61**	.53**	.97**	.90**	1						
수치3	.54**	.53**	.51**	.53**	.61**	.60**	.62**	.55**	.97**	.90**	.91**	1					
자살사고	.28**	.26**	.29**	.26**	.34**	.33**	.35**	.31**	.64**	.62**	.62**	.62**	1				
사고1	.21**	.18**	.23**	.20**	.28**	.27**	.27**	.26**	.56**	.54**	.53**	.54**	.93**	1			
사고2	.32**	.29**	.32**	.30**	.35**	.34**	.36**	.33**	.64**	.61**	.61**	.63**	.96**	.85**	1		
사고3	.27**	.27**	.26**	.25**	.33**	.33**	.34**	.30**	.63**	.61**	.62**	.60**	.96**	.84**	.89**	1	

*p<.05,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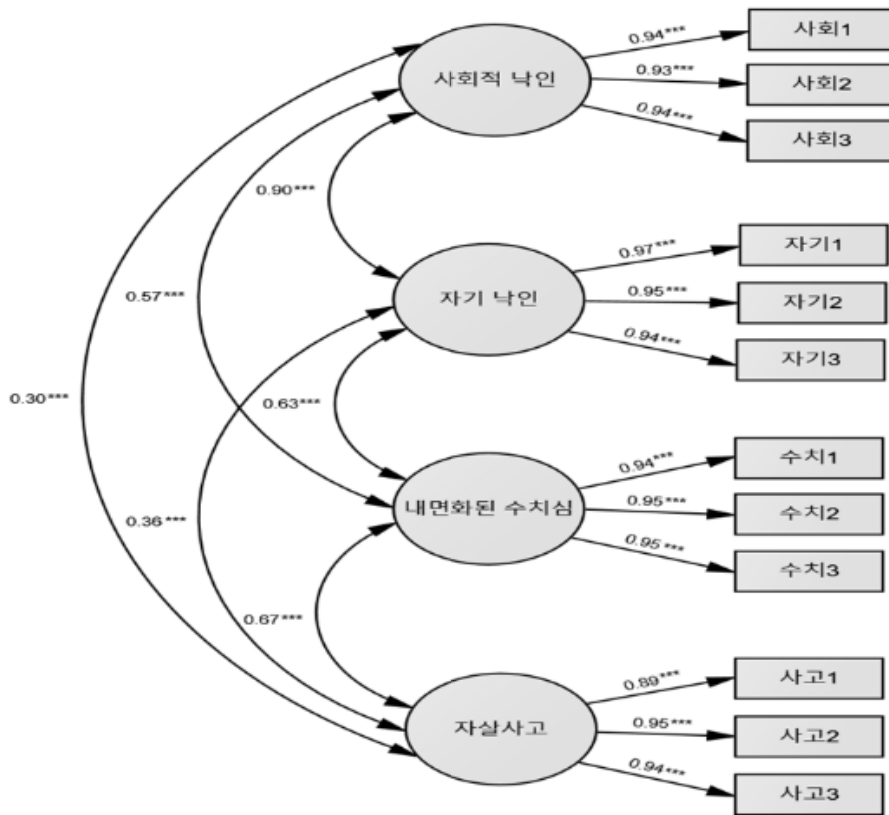
2. 측정모형

가. 측정모형 검증

측정 모형의 χ^2 은 87.26이고 자유도 df는 48로 유의 수준 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형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는 것은 본 모형이 연구의 자료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χ^2 검증은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아 모형을 쉽게 기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다른 근사적 적합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CFI는 0.99, TLI는 0.98로 모두 0.95보다 큰 값으로 본 모형이 자료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RMSEA는 0.05로 좋은 적합도의 기준에 부합하는 값이 나왔다. 따라서 이 측정 모형은 본 연구의 자료를 적절하게 추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요인 부하량과 상관계수를 비표준화 추정치와 비표준화 추정치의 표준오차를 제시하고 t점수를 계산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비표준화 계수는 모두 유의수준

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각 요인 부하량을 살펴보면 사회적 낙인의 측정 변인에 대한 요인 부하량은 표준화 계수 0.93에서 0.94 사이의 값으로 각 측정변인이 사회적 낙인 잠재요인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기 낙인과 측정 변인 사이의 요인 부하량은 0.94에서 0.97사이의 값으로 유의수준 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각 측정 변인이 자기 낙인 잠재 요인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측정 모형은 <그림 2>, 측정 모형의 적합도는 <표 4> 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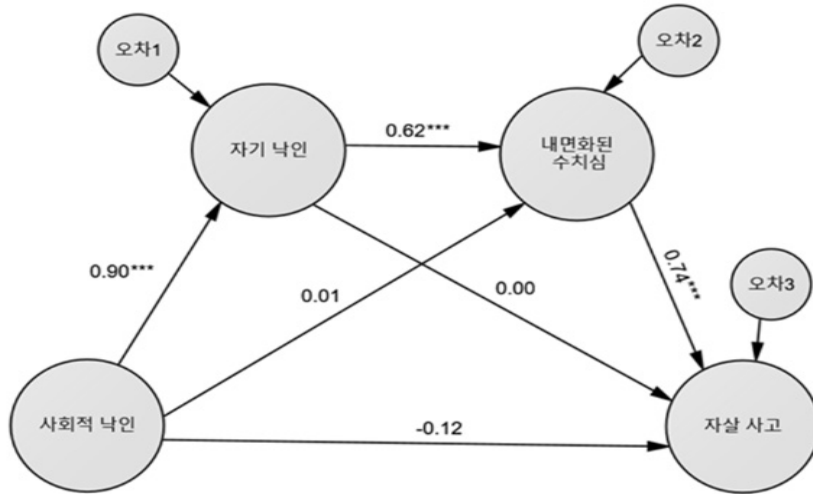
숫자는 표준화계수

*p<.05, **p<.01 ***p<.001

<그림 2> 측정 모형 분석 결과

나. 구조 모형 검증

Bootstrapping 결과에 따라 신뢰구간으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숫자는 표준화계수

*p<.05 **p<.01 ***p<.001

〈그림 3〉 구조 모형

(1) 모형 적합도

〈표 4〉 측정 모형의 적합도

모형	χ^2	df	p	CFI	TLI	RMSEA (90% 신뢰구간)
측정모형	87.26	48	0.00	0.99	0.98	0.05 (0.03-0.07)

*p<.05 **p<.01 ***p<.001

(2) 경로계수

사회적 낙인에서 자살사고로 가는 경로, 자기 낙인에서 자살사고로 가는 경로, 사회적 낙인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으로 가는 경로는 비표준화 계수 추정치 및 표준화 추정치가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내면화된 수치심에서 자살사고로 가는 경로는 비표준화 계수 0.44, 표준오차 0.04으로 유의수준 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표준화계수는 0.74으로 나타났다. 신뢰구간에서도 0.35에서 0.52 사이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자기낙인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으로 가는 경로는 비표준화 계

수 0.66, 표준오차 0.17로 유의수준 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표준화계수는 0.62로 나타났다. 신뢰구간에서도 0.31에서 1.00 사이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회적 낙인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으로의 경로는 비표준화 계수 12.35, 표준오차 0.56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표준화 계수는 0.90 였다. 신뢰구간에서 11.24와 13.46 사이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내면화된 수치심을 포함하는 세 가지 경로가 모두 유의함을 관찰할 수 있다.

<표 5>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t	표준화 계수
사회적낙인 → 자살사고	-1.08	1.37	-0.78	-0.12
자기낙인 → 자살사고	0.00	0.10	0.02	0.00
내면화된수치심 → 자살사고	0.44	0.04	10.34 ***	0.74
사회적낙인 → 내면화된수치심	0.14	2.44	0.05	0.01
자기낙인 → 내면화된수치심	0.66	0.17	3.78 ***	0.62
사회적낙인 → 자기낙인	12.35	0.56	21.86 ***	0.90

*p<.05 **p<.01 ***p<.001

3. 매개효과 검증

가. 전체 매개효과 검증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고, 간접효과의 크기가 95%의 신뢰구간으로 설정했을 때, 영가설이 설정한 값 0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매개효과가 유의한지를 확인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위해서 먼저 전체효과가 유의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매개효과 크기를 확인하고 매개효과가 설명하고 난 후의 직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여 완전매개인지 부분매개인지를 결정한다. 위의 구조 모형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표 7>에 매개효과를 정리하였다.

〈표 6〉 구조 모형의 적합도

모형	χ^2	df	p	CFI	TLI	RMSEA (90% 신뢰구간)
구조모형	87.26	48	0.000	0.99	0.98	0.05 (0.03-0.07)

본 연구의 구조 모형은 이중 매개 1개와 2개의 단순 매개 효과를 포함하는 다중단계 다중 매개모형이다. 전체 모형 적합도는 χ^2 는 87.26, 자유도(df)는 48로 유의수준 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른 적합도는 CFI는 0.99, TLI는 0.98, RMSEA 0.05로 모두 좋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이 값은 위의 측정 모형의 모형 적합도와 일치한다. 그 이유는 두 모형이 자유도가 48로 같고 측정 모형에서는 상관 화살표였던 관계가 구조 모형에서는 모두 경로 화살표로만 바뀐 동치 모형이기 때문이다(김수영, 2016).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구조 모형은 전체적으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표 7〉 각 경로별 매개효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95% 신뢰구간)		
사회적 낙인 → 자기낙인	0.90*** (11.24~13.46)		0.90*** (11.24~13.46)
사회적 낙인 → 내면화된 수치심	0.01 (-4.64~4.92)		0.01 (-4.64~4.92)
자기낙인 → 내면화된 수치심	0.62*** (0.31~1.00)		0.62*** (0.31~1.00)
자기낙인 → 자살사고	0.00 (-0.20~0.211)		0.00 (-0.20~0.211)
내면화된 수치심 → 자살사고	0.74*** (0.35~0.52)		0.74*** (0.35~0.52)
사회적 낙인 → 자기낙인 → 내면화된 수치심	0.01 (-0.32~0.34)	0.56*** (0.26~0.87)	0.57*** (0.48~0.67)
자기낙인 → 내면화된 수치심 → 자살사고	0.00 (-0.32~0.33)	0.46*** (0.22~0.71)	0.47* (0.05~0.89)
사회적 낙인 → 자기낙인 → 내면화된 수치심 → 자살사고	-1.04 (-2.23~0.13)	3.65*** (2.67~4.84)	2.61*** (1.57~3.64)

추정치는 표준화 계수

*p<.05 **p<.01 ***p<.001

사회적 낙인 → 자기낙인 → 내면화된 수치심으로 가는 매개효과는 신뢰구간은 0.26에서 0.8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간접효과($\beta=0.56$, $***p<.001$)의 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자기낙인 → 내면화된 수치심 → 자살사고 매개효과는 신뢰구간 0.22에서 0.71 사이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간접효과($\beta=0.46$, $***p<.001$)의 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사회적 낙인 → 자기낙인 → 내면화된 수치심 → 자살사고로 가는 이중 매개는 신뢰구간 2.67에서 4.84 사이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간접효과($\beta=3.65$, $***p<.001$)의 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으로 사회적 낙인과 자살사고 사이에서 자기낙인과 내면화된 수치심은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 이중매개효과 검증

앞에서 살펴본 구조모형 분석 결과 사회적 낙인이 자기낙인과 내면화된 수치심을 통하여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사실이 검증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낙인에서 자살사고에 이르는 전체 매개효과의 결과일 뿐 사회적 낙인에서 자살사고에 이르는 세 경로에서 각각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결과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개별매개효과와 이중매개효과가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M-plus 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 경로를 검증하였고,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 이중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경로		estimate	(95% 신뢰구간)	
			low	upper
사회적 낙인	자기낙인 →	자살사고	0.004	-0.29 0.30
사회적 낙인	내면화된 수치심 →	자살사고	0.007	-0.24 0.25
사회적 낙인 -> 자기낙인 ->내면화된 수치심 ->자살사고			0.42	0.19 0.65

* $p<.05$ ** $p<.01$ *** $p<.001$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적 낙인이 자기낙인을 거쳐 자살사고로 가는 경로는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사회적 낙인이 내면화된 수치심을

거쳐 자살사고로 가는 경로는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 낙인이 자기낙인을 거쳐 내면화된 수치심을 거쳐 자살사고로 가는 경로는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개효과가 유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중매개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회적 낙인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자기낙인과 내면화된 수치심이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및 논의

1.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HIV 감염인의 사회적 낙인이 자기낙인과 내면화된 수치심을 매개로하여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HIV 감염인의 사회적 낙인, 자기낙인, 내면화된 수치심, 자살사고 간에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각 변인간 경로분석을 하였으며, 사회적 낙인과 자살사고 사이에서 자기낙인과 내면화된 수치심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해 검증하고 마지막으로 이중 매개효과에 대해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본 연구의 각 변인 간 상관관계 중 사회적 낙인과 자기낙인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사회적 낙인에 대한 지지가 높을 때 자기낙인이 높아진다고 한 Bathje와 Pryor(2011)의 연구나 사회적 낙인이 각 체계를 거쳐 자기낙인으로 자리 잡는다고 본 선행연구들(Corrigan, 2004; Corrigan & Watson, 2002; Watson, Corrigan, Larson, & Sells, 2007)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자기낙인과 내면화된 수치심도 0.61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자기낙인을 가지고 있으면 심한 좌절감과 수치심, 두려움 등 부정적 감정들을 갖게 한다고 보았던 선행연구들(Nadler, Maler, & Friedman, 1984; 홍봉선, 남승규, 남미애, 2002; Link, 1982; Corrigan & Watson, 2002; Tomaka, Blascovich, Kelsey, & Leitten, 1993)을 지지한다. 반면 사회적 낙인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나, 경로계수의 분석결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것은 Bathje와 Pryor(2011)의 연구에서 사회적 낙인의 존재 여부보다 개인이 사회적 낙인을 지지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한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데, 개인이 사회적 낙인을 경험하는 것이 곧바로 개인에게 내면

화된 수치심을 심어주기보다는 개인이 사회적 낙인을 자신의 것으로 지지하고 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낙인과 자살사고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나 경로분석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것은 사회적 낙인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만으로 자살사고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그것이 자기와 관련되고 내면화되는 과정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Baumeister(1990)의 자기도피 이론(escape from self)에서 자살은 자기와 관련된 고통스런 생각 등으로부터의 도피라고 한 연구로 뒷받침될 수 있는데, 자살과 자살사고가 자신과 관련된 고통스런 생각이나 행동으로 부터의 도피이기에 사회적 낙인에 대해 자신이 동의하고 자신과 관련 있는 문제로 변모한 후 그것이 내면 안에서 벗어나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으로 존재할 때 자살사고가 생겨난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낙인과 자살사고의 관계도 같은데, 두 변인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거나 자기낙인이 자살사고로 가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 역시 자살은 자기와 관련된 심리적인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이며, 다양한 시도들의 실패로 최후에 선택하게 되는 것이 자살(Shneidman, 1984)이라고 했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데 자기낙인의 존재여부 뿐 아니라 다른 변인들이 존재할 때 자살사고가 발생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지금까지 HIV 감염인의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사회적 낙인과 자기낙인이 HIV 감염인의 자살사고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그 사이에 다양한 변인이 존재하며 더욱 다양한 변인들의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인 사회적 낙인이 자기낙인을 매개로 하여 자살사고로 가는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가설은 기각되었다. 이것은 사회적 낙인이 자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Branscombe, Schmitt, & Harvey, 1999)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Barreto, Ellemers, & Fiske, 2010)와도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자기낙인에서 자살사고로의 직접효과는 0.00이었으며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것은 사회적 낙인이 자기낙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만 자기낙인이 직접적으로 자살사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기보다는 중간에 다양한 변인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셋째, 본 연구의 세 번째 가설인 사회적 낙인이 내면화된 수치심을 매개하여 자살사고로 가는 경로도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가설은 기각되었다. 이것은 사회적 낙인이 내면화된 수치심을 거쳐 자살사고에 이르는 경로 중에 내면화된 수치심이 자살사고에 주는 영향은 유의미하나 사회적 낙인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경로에서는 다양한 심리적인 변인이 존재함을 나타낸다.

넷째, 본 연구의 네 번째 가설인 사회적 낙인이 자기낙인과 내면화된 수치심을 매개

로하여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냈으며 가설은 지지되었다. 이것은 HIV 감염인이 사회적 낙인을 자주 경험하고 있고, 이것이 자기 낙인화 되어 있으며, 내면화된 수치심도 함께 가지고 있을 때 자살사고를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Lester(1997) 및 Wiklander, Samuelsson, Jokinen, Nilsson, Rylander와 Asberg(2012)의 연구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자살사고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며, 자살 시도자들이 내면화된 수치심을 경험한다고 한 연구(Everall & Bostik, 2006)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자기지각과 현실에서 충족되지 않을 때 느껴지는 부정적 정서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자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연구(Baumeister, 1990; Shneidman, 1984)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에 자살사고와 관련하여 비감염인들에게 많은 연구가 되었던 내면화된 수치심이 HIV 감염인의 자살사고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HIV 감염인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낙인과 자기낙인이 주요하게 연구되었고 (Dickerson, Sommerville, & Origoni, 2002; Wahl, 1999; 권윤희, 2009; Corrigan, 2004; Holmes, River, 1998; 유미혜, 2003; 질병관리본부, 2015; Herek, Capitanio, & Widaman, 2002; Swendeman, Rotheram-Borus, Comulada, Weiss, & Ramos, 2006; Mak, Cheung, Law, Woo, Li, & Chung, 2007), 낮은 빈도로 자살사고가 연구되었으며 (권윤희, 2009; 권관우·이경무·변진옥, 2001; 박영숙, 오윤희, 2005), HIV 감염인이 비감염인보다 높은 자살사고율을 갖는 것은 사회적 낙인과 자기낙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연구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HIV 감염인이 사회적 낙인과 자기낙인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면화된 수치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면 자살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HIV 감염인의 자살사고율이 비감염인의 자살사고율에 비해 높은 것은 단순히 내면화된 수치심의 존재만이 자살사고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HIV 감염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낙인과 자기낙인이 내면화된 수치심에 영향을 주어 자살사고율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HIV 감염인이 사회적 낙인을 자주 경험하고 그것을 스스로 자기화하는 자기 낙인과 내면화된 수치심을 모두 거쳐 완전매개 할 때 자살사고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또한 서영숙과 김진숙(2007)은 내면화된 수치심이 대인관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기에 타인과의 관계를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HIV 감염인이 사회적 낙인과, 자기낙인, 내면화된 수치심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타인과의 관계에서 외로움이나 수치심 등을 자주 느끼며 주변인들과 관계의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예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내면화된 수치심이 있는 사람들은 상황이나 경험에 민감성과 강도, 빈도가 높게 수치심을 경험한다는 Andrew(1998)의 연구는 HIV 감염인이 사회적 낙인과 자기낙인, 그리고 내면화된 수치심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다른 사람들은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나 경험 중에도 민감하게 수치심을 경험하며 더욱 잦은 빈도와 높은 강도로 수치심을 경험하고 이것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HIV 감염인이 사회적 낙인과 자기낙인과 더불어 내면화된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상담의 현장에서 HIV 감염인이 상담사에게 의지하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는 등의 태도를 보일 수 있고(Dickerson, Gruenewald & Kemeny, 2004), 내면화된 수치심의 특성 때문에 자신의 약점들을 숨기고 은폐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으며(Lewis, 1971; Tangney et al., 2002), 분노를 표현하거나 비난할 수 있으므로(Lewis, 1971), 협력관계가 형성될 때까지 상담사는 수용과 공감의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상담사는 HIV 감염인을 상담할 때 그들의 내면화된 수치심의 특성에 대해 잘 알고 대처함으로써 HIV 감염인이 상담 장면에서 수치심에 노출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본 결과는 HIVS 감염인의 상담시 주변인과의 관계에 대해 깊이 있는 탐색이 필요하며(서영숙, 김진숙, 2007), HIV 감염인이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주변인을 가지고 있는지, 원 가족과의 관계는 어떤지 등의 타인과의 관계망을 탐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많은 경우 사회적 낙인을 자주 경험하는 HIV 감염인이 사회적 낙인을 자기 낙인화하고 내면화된 수치심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HIV 감염인이 주변인들과 공고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고(Dickerson, Gruenewald, & Kemeny, 2004), 그것이 HIV 감염인에게 자살사고를 불러일으켜,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심혜진, 김지현, 2013; Bryan, Morr, Etienne, & Ray Scannerud, 2013; Lester, 1998; Seidlitz, Corwell, Duberstein, Cox, & Denning, 2001; Wiklander et al., 2012). 또 반대로 보자면 HIV 감염인이 주변사람들과 공고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고 지지체계가 없으며 내면화된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낙인과 자기낙인을 가지고 있다면 HIV 감염인이 자살사고를 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염두에 두고 탐색을 해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V. 연구의 의의 및 제언

1. 연구의 의의 및 제언

가.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HIV 감염인들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무엇인지와 사회적 낙인을 경험하는 것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자살사고에까지 이르는지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HIV 감염인의 심리적인 부분에서 양적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기존의 HIV 감염인에 대한 연구는 주로 보건, 복지, 의료등의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고 상담심리분야에서는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면이 있었고 대부분의 HIV 감염인을 대상으로한 기존의 논문들은 소수의 HIV 감염인을 만나 질적인 연구를 한 것들이었기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본 논문을 통하여 상담심리 분야에서 HIV 감염인의 사망원인을 양적 연구로 분석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HIV 감염인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내면화된 수치심이 매우 큰 설명력을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 연구자가 연구를 시작할 때는 HIV 감염인들의 자살사고를 예견할 수 있는 가장 큰 변인이 사회적 낙인이나 자기낙인일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낙인이나 자기낙인이 HIV 감염인들이 가장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일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추론되고,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이 연구되어져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HIV 감염인들이 사회적 낙인과 자기낙인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자살사고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것은 연구자들이 일반적으로 추론하는 상식이 실제의 존재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런 결과는 HIV 감염인들에 대한 연구가 다양화될 필요가 있으며, 그중 심리적인 부분에서의 양적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진정으로 HIV 감염인을 도울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 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하여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것 또한 연구의 의의라고 할 것이다. HIV 감염인의 연구에서 사회적 낙인이라는 변인과 자기낙인의 관계, 내면화된

수치심, 자살사고의 관계들을 살펴봄으로써 사회적 낙인이 자기낙인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다는 것, 그리고, 사회적 낙인과 내면화된 수치심은 상관관계가 존재하기는 하나 유의한 경로는 가지지 않는다는 것 등 각 변인들간의 관계와 경로를 연구결과로 도출함으로써 차후 HIV 감염인에 대한 연구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 제언

첫째, 각 변수가 모두 HIV 감염인이 경험하고 있는 부정 정서를 다루고 있기에 설문에 참여하는 HIV 감염인들이 다소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거나 자신의 질병의 어두운 면을 인식하게 될 수 있다. 추후의 연구자들은 자살사고를 조절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인들의 연구를 통하여 연구에 참여하는 HIV 감염인들이 자신의 모습에 대해 고찰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간접의 효과도 얻도록 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설문의 기간이 다소 짧아 지역적인 분배가 골고루 분포되는 설문이 되지 못한 점에는 아쉬움이 있다는 점이 보완된다면 더욱 객관적인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감염기간별로 자살사고의 특성이 다를 수 있음에도 일괄적인 연구와 통계를 한 점은 아쉬움이 있다. 차후의 연구에서 감염기간에 따른 특성을 자세히 연구하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HIV 감염인 들의 심리적인 특성들을 파악할 수 있다면 보다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들은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수집된 것으로 응답자가 문항에 반응한 수준이 실제보다 과장되거나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검사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고려한 다양한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사회적 낙인과 자기낙인을 거쳐 자살사고 사이에서 매개하는 모형으로 연구를 하였다. 그러나 내면화된 수치심의 특성상 어린 시절부터 내면화되어 있거나 혹은 HIV 감염이 되기 전에 이미 내면 안에 존재 할 가능성이 있다. 서영숙과 김진숙(2007)의 논문에서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어린 시절 중요한 타자와의 관계에서 수치심이 반복될 때 수치심이 내면화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차후 내면화된 수치심의 선행되어 존재할 때 추후에 사회적 낙인이나 자기낙인을 더욱 잘 느끼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해본다면 이것 또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강유선(2010). 음악전공 여대생의 완벽주의와 연주불안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관우, 이경무, 변진옥(2001). HIV/AIDS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별에 대한 연구. 보건과사회과학, 12, 199-218.
- 권윤희(2009). HIV 감염인의 자살사고와 결정요인.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경하(2008). HIV/AIDS 감염인의 자존감 향상과 신체기능증진에 대한 개입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0, 101-135.
- 김경하(2013). 사회적 낙인과 사회적 지지가 HIV/AIDS 감염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주(2016). 비만 여성의 차별 경험과 다이어트 -20-30대 미혼 여성들을 중심으로-. 사회연구통권, 29, 93~136.
- 박병금(2007). 청소년의 가족환경요인과 자살생각: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생활과학연구논총, 11(1), 1-17.
- 박영숙, 오윤희(2005). HIV 감염자의 삶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1(2), 110-119.
- 박옥남(2016). 학생정신건강낙인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영숙, 김진숙(2007). 사회적 행동의 구조 분석(SASB) 모형을 통해 본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이미지 및 대인패턴. 상담학연구, 8, 859-875.
- 손영민, 정우정(2017). 우리나라 결혼여성 뇌전증 환자의 질병 체험.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47(3), 289-304.
- 심혜진, 김지현(2013). 여성의 수치심, 자기용서와 자살 생각: 자기용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육논총, 34(1), 159-179.
- 여지영(2015).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관한 연구 : 회복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미혜(2002). HIV감염인/AIDS환자에 대한 낙인이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인숙, 최해림(2005).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SS)의 타당화 연구 -애착, 과민성 자기애, 외로움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7(3), 651-670.

- 질병관리본부, 대한에이즈예방협회(2015). 2015년 에이즈에 대한 지식, 태도, 신념 행태 조사. 서울 : 통계청
- 한국 HIV 낙인 지표 조사 공동 기획단(2017). 한국 HIV 낙인 지표 조사 2016-2017. <http://www.stigmaindex.org>, (2017.07.20)
- 홍봉선, 남승규, 남미애(2002). 소년사법처리과정에 있는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교정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51, 183-210.
- Ablon, J.(2002). The nature of stigma and medical conditions. *Epilepsy & Behavior*, 3, 2-9.
- Andrew, B.(1998). Methodological and definitional issues in shame research. In Gilbert, P., & Andrew, B. (Eds.), *Shame, Interpersonal behavior, psychopathology, and culture*. 39-54.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arreto, M., Ellemers, N., & Fiske, S.(2010). "What did you say, and who do you think you are?": How power differences affect emotional reactions to prejudice. *Journal of Social Issues*, 66, 477-492.
- Bathje, G. J., & Pryor, J. B.(2011). The Relationships of Public and Self-Stigma to Seeking Mental Health Services.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33, 161-176.
- Baumeister, R. F.(1990). Suicide as escape from self. *Psychological Review*, 97, 90-113.
- Beckett A & Shenson D.(1993). Suicide risk in patients with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infection and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Harvard review of Psychiatry* 1993, 1, 27-35.
- Berger, B. E., Ferrans, C. E., & Lashley, F. R.(2001). Measuring Stigma in People HIV : Psychometric Assessment of the HIV Stigma Scale. *Research in Nursing & Health*, 24, 518-529.
- Branscombe, N. R., Schmitt, M. T., & Harvey, R. D.(1999). Perceiving pervasive discrimination among African Americans: Implications for group identification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 135-149.
- Bryan, C. J., Morrow, C. E., Etienne, N., & Ray-Sannerud, B.(2013). Guilt, shame, and suicidal ideation in a military outpatient clinical sample. *Depression and*

- Anxiety*, 30, 55-60.
- Bunn, J. Y., Solomon, S. E., Miller C., & Forehand, R.(2007). Measurement of Stigma in People with HIV : A reexamination of the HIV Stigma Scale. *AIDS Education and Prevention*, 19, 198-208.
- Cook, D. R.(2001). Internalized Shame Scale: Technical manual. Toronto: Multi-Health Systems.
- Corrigan, P. W.(1998). The impact of stigma on severe mental illness. *Cognitive and Behavioral Practice*, 5, 201-222.
- Corrigan, P. W., & Watson, A. C.(2002). The paradox of self-stigma and mental illness.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9, 35-60.
- Corrigan, P. W.(20 04). How stigma interferes with mental health care. *American Psychologist*, 59, 614-625.
- Corrigan, P. W., Rafacz, J., & Rüsçh, N.(2011). Examining a progressive model of self-stigma and its impact on people with serious mental illness. *Psychiatry Research*, 189, 339-343.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 16-20.
- Dickerson, F. B., Sommerville, J. L., & Origoni, A. E.(2002). Mental illness stigma: An impediment to psychiatric rehabilitation. *Psychiatric Rehabilitation Skills*, 6, 186-200.
- Dickerson, S. S., Gruenewald, T. L., Kemeny, M. E.(2004). When the Social Self Is Threatened: Shame, Physiology, and Health. *Blackwell Publishing Ltd*, 72, 1191-1216.
- Eisenberg, D., Downs, M. F., Golberstein, E., & Zivin, K.(2009). Stigma and help seeking for mental health among college students. *Medical Care Research and Review*, 66, 522-541.
- Everall, R. D., Bostik, K. E., & Paulson, B. L.(2006). Being in the Safety Zone Emotional Experiencesof Suicidal Adolescents and Emerging Adul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21, 370-392.
- Goss, K., Gillbert, P., & Allan, S.(1994). An exploration of shame measures: The

- other as shamer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7, 713-717.
- Heckman TG, Miller J, Kochman A, Kalichman SC, Carlson B, Silverthorn M.(2002). Thoughts of Suicide Among HIV-infected Rural Persons Enrolled in a Telephone-Delivered Mental Health Intervention. *Annual Behavioral Medicine*, 24, 141-148.
- Herek, G. M., Capitanio, J. P., & Widaman, K. F.(2002). HIV-Related Stigma and Knowledge in the United States : Prevalence and Trend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2, 371-377.
- Holmes, E. P., & River, L. P.(1998). Individual strategies for coping with the stigma of severe mental illness. *Cognitive and Behavioral Practice*, 5, 231-239.
- Hu, L. T., & Bentler, P. M.(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 1-55.
- Kline, R. B.(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Lester, D.(1997). The role of shame in suicide.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7, 352-361.
- Lester, D.(1998). The association of shame and guilt with suicidality.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8, 535-536.
- Lewis, H. B.(1971). Shame and guilt in neurosi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Link, B. G., Cullen, F. T., Struening, E. L., Shrout, P. E., & Dohrenwend, B. P.(1982). A modified labeling theory approach to mental disorders: An empirical assess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 400-423.
- Major, B., & O'Brien, L. T.(2005). The psychology of stigma.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6, 393-421.
- Mak, W. W., Cheung, R. Y., Law, R. W., Woo, J., Li, P. C., & Chung, R. W.(2007). Examining attribution model of self-stigma on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people with HIV+/AIDS. *Social science & medicine*, 64, 1549-1559.
- Moneyham L, Murdaugh C, Phillips KD, Jackson K, Tavakoli A, Boyd M, et

- al.(2005). Attens of risk for depressive symptoms among HIV+ women in the southeastern United States.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Nurses in AIDS Care* 2005, 16, 25-58.
- Nadler, A., Maler, S., & Friedman , A.(1984). Effects of helper's sex, subject's and rogyne, and self evaluation on male's and female's willingness to seek and receive help. *Sex Roles*, 10, 327-339.
- Nock M K, Borges G, Bromet EJ, Cha CB, Kessler RC and Lee S.(2008). Suicide and Suicidal Behavior. *Epidemio logic Reviews* 2008, 30, 133-154.
- Pasupuleti, R. V.(2013). Cultural factors, stigma, stress, and help- seeking attitudes among college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Rhode Island.
- Reynolds, W. M.(1988).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Scheff, T, J.(1966). Being mentally ill; A sociology theory. Chicago: Adine de Gruyter.
- Shneidman, E. S.(1984). Aphorisms of suicide and some implications for psychotherapy.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38, 319-328.
- Swendeman, D., Rotheram-Borus, M. J., Comulada, S., Weiss, R., Ramos, M. E.(2006). Predictors of HIV-Related Stigma Among Young People Living With HIV. APA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501-509.
- Tangney, J. P.(2002) *What is the diference between Shame and Guilt?* Shame and Guilt, 10-27. New York: Guilford.
- Tomaka, J., Blascovich, J., Kelsey, R. M., & Leitten, C. L.(1993). Subjective, physiological, and behavioral effects of threat and challenge appraisa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248-260.
- Vogel, D. L., Bitman, R. L., Hammer, J. H., & Wade, N. G.(2013). Is stigma internalized? The longitudinal impact of public stigma on self-stigma. *Journal of Co unseling Psychology*, 60, 311-316.
- Wahl, Otto F. (1999). Mental health consumers' experience of stigma. *Schizophrenia Bulletin*, 25, 467-478.
- Watson, A. C., Corrigan, P., Larson, J. E., & Sells, M.(2007). Self-stigma in people with mentalillnes. *Schizophrenia Bulletin*, 33, 1312-1318.

Wiklander, M., Samuelsson, M., Jokinen, J., Nilsson, A., Rylander, G., & Asberg, M.(2012). Shame-proneness in attempted suicide patients. *BMC Psychiatry*, 12, 1-9.

〈Abstract〉

The impact of social stigma of HIV infected people on suicide ideation mediated by self-stigmatization and internalized shame

Kwon, kyung-ae · Hong, Hye-young
AIDS Counseling Center Myongj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social stigma on suicide ideation through the mediums of self-stigma and internalized shame in HIV-infected people. The objects of this study were 247 HIV-infected people, and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mediation analysis, and dual medi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SPSS and PROCESS Macro.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meaningful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social stigmatization and self-stigmatization, self-stigmatization and internalized shame, and internalized shame and suicide ideation. Second, social stigmatization through the medium of self-stigmatization had no meaningful influence on suicide ideation. Third, social stigmatization through the medium of internalized shame had no meaningful influence on suicide ideation. Fourth, between social stigmatization and suicide ideation, self-stigmatization and internalized shame were meaningful in terms of having a double mediation effect. This research identified social stigmatization, self-stigmatization, and internalized shame in HIV- infected people as variables that influence suicide ideation. It also concluded that the social and self-stigmatization of HIV-infected people alone does not influence suicide ideation, and that this effect takes place with the additional presence of internalized shame. Possible implications and discussion points of the results of the research were also suggested.

Key Words: HIV-infected people, Social stigma, Self-stigma, Internalized shame, Suicide ideation, Mediating effect

부록 1. HIV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 질문지

다음은 귀하의 사회적 낙인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의 각 문항을 읽고 귀하가 느끼는 것과 가장 일치하는 란에 V표 해주십시오.

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4	3	2	1
1. 내가 HIV/AIDS를 가지고 있다고 친구들에게 말해서 그들을 잃었다.				
2. 사람들이 내가 HIV/AIDS를 가진 걸 알고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상처 받는다.				
3. 내가 HIV/AIDS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사람들은 나에게 손대지 않을 것이다.				
4. 나는 그들의 반응 때문에 몇몇 사람들과 사회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5. 내가 HIV/AIDS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사람들이 나에게 연락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신경 쓴다.				
6. 사람들은 내가 HIV/AIDS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인다.				
7. 사람들은 내가 HIV/AIDS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거리를 둔다.				
8. 내가 HIV/AIDS가 있음을 아는 몇몇 사람들과는 거리감이 더 커졌다.				
9. 내가 HIV/AIDS가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나의 장점을 무시한다.				
10. 사람들은 내가 HIV/AIDS가 있음을 안 즉시 그들의 아이들 주변에 내가 있는 것을 꺼려한다.				
11. 나는 내가 HIV/AIDS를 가졌다고 몇몇 사람들에게 말한 것을 후회한다.				
12. 내가 HIV/AIDS라는 사실을 내가 반드시 숨겨야한다고 느낀다.				
13. 나는 내가 HIV/AIDS를 가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다른 이에게 말할 것을 두려워한다.				
14. 나는 내가 누군가에게 HIV/AIDS를 가졌다고 말할까봐 매우 주의한다.				
15. 나는 내가 HIV/AIDS를 가지고 있다는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				
16. 나는 내가 HIV/AIDS를 가지고 있다는 비밀 유지를 위해 사람들에게 주의하라고 말한다.				

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4	3	2	1
17. 내 삶의 많은 영역에서 누구도 내가 HIV/AIDS가 있음을 알지 못한다.				
18. 내가 HIV/AIDS가 있음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				
19. 나는 사람들이 내가 HIV/AIDS가 있다는 것을 알 때 그들이 날 판단할까 걱정된다.				
20. HIV/AIDS를 가졌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나는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한다.				
21. 나는 내가 HIV/AIDS를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만큼 좋지 않다고 느낀다.				
22. HIV/AIDS를 가졌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불결한 느낌을 준다.				
23. HIV/AIDS를 가졌다는 것은 나를 타인들과 구별 짓게 한다.				
24. HIV/AIDS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나로 하여금 나 스스로에 대해 좋지 않은 느낌을 준다.				
25. HIV/AIDS를 가졌기 때문에 나는 죄책감을 느낀다.				
26. HIV/AIDS를 가진 것에 대해서 나는 부끄러움을 느낀다.				
27. 대부분의 사람들은 HIV/AIDS를 가진 사람들을 구분 짓는다고 생각한다.				
28. HIV/AIDS를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HIV/AIDS를 가졌다고 알게 될 때 거부당한다.				
29. HIV/AIDS를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용주가 그들이 HIV/AIDS를 가졌다고 알게 될 때 그들의 직업을 잃는다.				
30. 대부분의 사람들은 HIV/AIDS를 가진 사람은 더럽다고 믿는다.				
31. 대부분의 사람들은 HIV/AIDS를 가진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을 불편해 한다.				
32. HIV/AIDS를 가진 사람들은 왕따처럼 치부된다.				

〈별첨 1〉

통합치료연구 연구 윤리 관련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통합치료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과 관련된 연구 활동의 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을 검증하여 연구 활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자의 정직성) ① 연구자는 본인이 수행하는 연구과정 전반에 걸쳐 모든 과정을 정직하게 수행해야 한다. 연구과정은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디자인의 설계, 연구 참여자에 대한 보호, 결과의 분석, 연구 참여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이 포함된다.

- ② 연구자는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표절, 사기, 조작, 위조 및 변조, 중복 게재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해야 한다.
- ③ 본 향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④ 연구자는 연구 수행 시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기관과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해야 한다.

제3조 (연구자의 의무) ① 연구자는 연구의 제안, 과정, 및 결과보고 등의 연구전반에 걸친 활동을 정직하고 진실 되게 수행해야 한다.

- ② 연구자는 연구활동 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판단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 한다.
- ③ 연구자는 타인의 연구 활동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존중한다.

제4조 (연구 부정행위) 본 학회의 학회지는 다음과 같은 연구 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학회지 발간 이후 적발 시에는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①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결과물을 기록하고 보고하는 행위
- ② 변조: 연구결과물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③ 표절: 본인이나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물을 원저자 승인 없이 인용, 또는 참조 없이 도용 하는 행위
- ④ 중복게재: 1) 연구자는 국내·외 타 학회와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거나 발표 예정인 연구물을 본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수 없다.
2) 연구자는 국내·외 타 학회와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거나 발표 예정인 연구물을 본 학회의 학회지에 게재신청할 수 없다.

제5조 (연구 참여자 보호) 연구자는 각자의 연구 활동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정신적, 신체적 위해가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연구 시행 전 반드시 연구 참여자 또는 법적 대리인에게 연구 절차와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동의를 받는다.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학회장과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학회장이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은 상임이사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④ 위원이 심의대상자아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당 심의 건에 대한 위원자격을 상실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⑥ 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후임위원을 위촉하여 그 임기를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연구윤리심의규정) 윤리위원회는 아래의 사항들을 심의하고 결정하며, 그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 ①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 심의
- ② 본 학회의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사항 심의
- ③ 연구의 진실성 검증, 검증 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④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와 심의대상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 ⑤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

제8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①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는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하여야 한다.

- ②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와 결과는 학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 부정행위 심의 대상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④ 조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해당 연구 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 요구
 - 2) 해당 연구자의 논문 투고 3년간 금지
 - 3) 해당 연구과제의 관련자 교체
 - 4) 적정 기간 회원자격 상실
 - 5) 제명
 - 6) 법률기관에의 고발 등

조사 결과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심의대상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별첨 2〉

투고규정

가. 투고논문의 범위는 놀이치료, 상담심리, 언어치료, 예술심리치료, 음악치료 및 심리상담적 이론과 접근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 시각의 연구 및 관련 주제를 다룬 국문 또는 영문논문으로서 투고자격은 회원으로 한다. 단, 논문 등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여타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나. 투고논문 제출은 e-mail을 통해 파일을 전송한다. 원고작성 시 투고규정에서 정한 “논문 작성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다. 원고분량은 논문작성지침에 의거한 규격용지 기준 국문원고 15매, 영문원고 20매로 제한한다.

라.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제1저자를 저자표기 가장 앞부분에, 나머지 연결저자는 논문집필의 기여도에 따라 순서대로 표기한다.

마. 투고 시 원고 겉면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 e-mail을 포함한 연락처를 명기하며, 제출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바. 투고논문은 다른 간행물, 논문집 등에 발표되지 않은 창작물이어야 하며, 제출된 논문은 『통합치료연구』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게재 불가판정 논문에 한해서는 일체의 심사내용을 통보하지 않는다.

사. 투고시 심사비 8만원(급행논문 심사비 12만원), 게재 확정시 10만원(15쪽 기준)을 납부하며 15쪽(본 학술지의 편집기준)을 초과한 경우 인쇄쪽당 1만원씩 추가 납부한다.

아. 본 학술지 원고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은 접수가 불가하다.

자. 『통합치료연구』는 연2회 발간(2월 25일, 8월 25일)하고 있다.

차. 논문의 인쇄 용 최종 원고를 제출하는 경우 이 논문의 저작권(디지털 저작권 포함)과
전송권은 학회로 귀속된다.

〈별첨 3〉

논문 작성 요령

[통합치료연구] 투고 논문 작성 양식

1. 원고 작성 개요

가. 작성 도구: 한글 3.0 이상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나. 논문원고 용지

(1) 용지 종류: 사용자 정의(190×260)

(2) 용지 여백: 위쪽 18, 아래쪽 20, 왼쪽 26, 오른쪽 26, 머리말 10, 꼬리말 10,
제본 0

다. 문단 모양 : 줄간격 170

라. 글자 모양

	글꼴	크기	장평	자간	문단정렬	비고
제목	신명조	18p	100	0	가운데	진하게
저자명	중고딕	10p	100	0	오른쪽	1줄 띄고
소속	신명조	9p	100	0	오른쪽	
요약	중고딕	9p	95	-5	양쪽정렬	1줄 띄고 줄간격 140 좌우여백 :4
본문	신명조	11p	95	-5	양쪽정렬	
그림	중고딕	10p	95	-5	하단 가운데	출처 9p 중고딕 그 외 설명 9p 신명조
표	중고딕	10p	95	-5	왼쪽상단	출처 9p 중고딕 그 외 설명 9p 신명조
참고문헌 제목	견명조	14p	95	-5	가운데	
참고문헌 내용	신명조	9p	95	-5	양쪽정렬	
영문초록 제목	신명조	14p	95	-5	가운데	진하게
영문초록 내용	신명조	9p	95	-5	양쪽정렬	
부록제목	중고딕	10p	95	-5	왼쪽	진하게
부록내용	신명조	10p	95	-5	양쪽정렬	

마. 제목의 번호 붙임

- 1단계: I. II. III. (2줄 띄고, 14p, 견명조, 가운데)
- 2단계: 1. 2. 3. (1줄 띄고 3칸에서 시작, 11p, 중고딕, 진하게)
- 3단계: 가. 나. 다. (1줄 띄고 3칸에서 시작, 11p, 신명조, 진하게)
- 4단계: (1) (2) (3) (1줄 띄고 4칸에서 시작, 11p, 중고딕)
- 5단계: ㄱ. ㄴ. ㄷ. (4칸에서 시작, 9p, 신명조)
- 6단계: (ㄱ) (ㄴ) (ㄷ) (4칸에서 시작, 9p, 신명조)

바. 들여쓰기

문단의 첫 문장은 3칸에서 시작, 문장과 문장 사이는 1칸으로 하고, 문단과 문단사이
는 1줄 띄지 않는다(“참고문헌”의 들여쓰기는 9칸에서 시작함).

사. 용어의 사용

- (1)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적 혼동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용어가
처음 나왔을 때 () 속에 원어나 한자를 쓴다.
- (2) 세 개 또는 그 이상의 관련성 있는 단어를 연속하여 나열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단어 바로 앞에 심표 없이 “그리고”, “와(과)”, “및”, “혹은” 등을 삽입한다.

2. 인용 사항

본문에 인용문을 삽입하는 경우에는 단어 및 구두점 등의 모든 사항이 인용되는 원
문과 일치되어야 하며, 그 인용부분의 길이에 따라 다음 규정을 지킨다.

가. 인용내용이 짧은(1-2행) 경우 에는 본문 속에 인용부호(“ ”)를 사용하여 기술하
며, 인용내용의 끝에 인용출처(저자, 출판년도)를 밝힌다. 한 문장 내에서 내용을
축약하는 경우에는 반 칸을 띄운 후에 세 개의 공간점“...”을 사용한다.

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홍길동, 2003)

나. 인용내용이 긴(3행 이상) 경우 에는 본문에서 따로 떼어 기술한다. 이 경우에는,
인용 부분의 아래와 위를 본문에서 한 줄씩 띄고 좌우로 각각 3글자씩들여 쓴다.
인용문의 출처는 “저자(출판년도)”를 먼저 밝히고 인용문을 적거나, 인용문 뒤에
“저자(출판년도)”를 표기한다.

예: 이승환(2005)은 언어병리학이 다학문적 학문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다음과같은 의견을 피력하였다. 특수교육학, 심리학, 컴퓨터공학 등의 전문가들과 협력해야 하고, 나아가 의학의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팀을 구성해야 할 장애 유형도 많다. 그래서 상호 의뢰가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한다.

3. 각주(脚註, footnote)와 후주(後註, endnote)

가. 각주의 사용은 금한다.

나. 그 대신, 본문에 표시하기 어려운 보충적 내용이나 설명에 한하여 후주의 사용을 허용한다. 후주를 표시하는 위치는 본문 내 해당되는 곳에 반 괄호를 붙인 어깨 숫자로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그 내용은 본문의 가장 뒤, 참고문헌 바로 앞에 기술한다.

4. 본문 내의 인용문헌

가. 직접 인용의 경우: 인용부호(“ ”)를 달고 기술하며, 인용처(저자 및 발행년도)를 표기한다.

예 1: 김영옥(2003)에 의하면 “.....”

예 2: 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김영옥, 2003)

나. 간접 인용의 경우 : “저자”와 “출판년도”를 아래 예들과 같이 명기하되, 출판년도 표시의 괄호 앞 어절이 한글일 경우에는 괄호를 붙여 쓰고 (단, “참고문헌”에서는 반 칸을 띄어 쓴다), 영어인 경우에는 반 칸 띄고 쓴다.

예 1: 이 이론에 대하여 고도홍(2003)은.....

예 2: 이 이론에 대하여 Pinker(1975)는.....

예 3: 한 연구(고도홍, 1995)에 의하면.....

예 4: 최근의 연구(고도홍, 1995; Boone, 1990)에 의하면.....

다. 저자가 다수인 경우:

(1) 저자가 3인 이상 5인까지일 경우, 최종 저자 앞에 “및” 또는 “와/과”로 표기 한다. 또 같은 문헌이 반복 인용될 때에는 한국인인 제 1저자의 성과 이름 뒤에 “등/외”를 표기하고, 외국인인 제 1저자의 성 뒤에 et al.을 표기한다.

예 : 김수진, 윤미선 및 김정미(2002)는... 첫 인용
 김수진 등(2002)은... 반복 인용
 Boone, Hodson & Paden(1995)은... 첫 인용
 Boone et al.(1995)은... 반복인용

(2) 6인 이상이면 제1저자만 기재하고 “000 외”나 “0000 et al.”등으로 표시한다.

5. 참고문헌 작성법

가. 참고문헌은 논문의 말미에 한, 중, 일, 기타 동양, 서양 문헌 순으로 열거한다. 서양 문헌작성의 경우 여기에서 규정한 형식 이외의 것은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양식에 따른다.

나. 저자는 저자수와 관계없이 모두 표시한다. 영문 이름의 경우에는 성을 먼저 쓰고, 이름은 첫 글자만(예: Kim, H. K.) 표시한다.

다. 동일한 저자가 같은 해에 낸 다수의 논문을 참고했을 경우에는 출판년도 뒤에 영문 소문자를 써서 구별한다.

예: 2005a,

라. 단행본(연수회 교재, 발표회 교재 및 검사도구 포함)의 경우:

(1) 국문: 저자 또는 편집자(출판년도). 책제목. 출판사 소재지: 출판사.

예 1: 이승환(2005). 유창성장애. 서울: 시그마프레스.

예 2: 심현섭, 신문자, 이은주(2004). 파라다이스-유창성검사

(Paradise-Fluency Assessment, P-FA). 서울: 파라다이스복지재단.

(2) 영문: 저자 또는 편집자(출판년도). 책제목(이탤릭체). 출판사 소재지: 출판사.

예: Van Riper, C. & Erickson, R. L.(1996). *Speech correction: An introduction to speech pathology and audiology*. Needham Heights, MA: A Simon & Schuster Co.

마. 단행본 속의 논문 또는 단원(chapter)의 경우:

(1) 국문: 저자(출판년도). 논문[단원]명. 편집자[기관]명(편). 단행본명. 발행지: 발행처.

예: 김영태(2000). 조음음운장애 치료를 위한 임상이론. 한국언어청각임상학

회(편). 말·언어임상 전문요원교육: 조음음운장애 및 실어증 치료기법의 임상적 적용. 서울: 한학문화.

(2) 영문: 위와 동일하나 출처인 단행본명을 이탤릭체로 표기

아래 예와 같이 단행본저자의 이름을 표기하되, 단행본 저자가 1명인 경우에는 “(Ed.)”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Eds.)”로 표기.

예: Beeson, P. & Hillis, A.(2001).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of written words*. In R. Chapey(Ed.), *Language intervention strategies inaphasia and related neurogenic communication disorders*(4th ed.). Baltimore, MD: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3) 단행본이 재판(再版)이상 : 단행본명 뒤의 ()안에 “3판” 혹은 “3rd ed.” 등으로 표기.

바. 정기간행물(학술지) 속의 논문의 경우:

(1) 국문: 저자(출판년도). 논문명. 논문수록 학술지명, 권(호) 번호, 페이지.

예: 장빛나, 김수지(2009). 타악기를 이용한 음악 활동이 유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8(3), 213-226.

(2) 영문: 저자(출판년도). 논문제목. 논문수록 학술지명(이탤릭체), 권(호), 페이지.

예: Kim, S. J.(2010). Music therapy protocol development to enhance swallowing training for stroke patients with dysphagia. *Journal of Music Therapy*, 57(2), 102-119.

사. 학위논문의 경우

(1) 국문 : 저자(출판년도). 논문제목. 학위수여대학. 학위명.

예: 김민정(2004). 아동용 한국어 조음검사의 개발.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 병리학 협동과정 박사학위논문.

(2) 영문 : 저자(출판년도). 논문명(이탤릭체). 학위명, 학교명 및 학교소재지.

단, 석사논문은 “master's thesis”로, 박사논문은 “doctoral dissertation”으로 표기한다.

예: Sim, H. S.(1996). Kinematic analysis of syllable repetition and sound prolongation in children who stutt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owa, Iowa City.

아. 번역서의 경우

- (1) 원저자명(출판년도). 번역서명[원전의 제목을 알고 있는 경우에 표기]. (역자명).
 번역서의 출판지: 번역서의 출판사명.
 예 1: 정옥란(역)(1993). 음성과 음성치료. 대구: 배영출판사.
 예 2: 이승복, 한기선(공역)(2000). 의사소통 과학과 장애: 과학에서 임상실습까지. 서울: 시그마프레스.

자. 연수회, 특강 또는 학술대회 자료의 경우

- (1) 저자명(발표된 년도). 발표제목. 자료명. 발표장소.
 예 1: 윤미선, 이봉원(2005). 한국어 어휘 특성에 따른 단어인식 검사에 대하여.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전북대학교, 전주.
 예 2: Pae, S. & Yoon, H. J.(2005). Reading miscue analysis of the Korean second graders. Proceedings of the American Speech-Language-Hearing Association(ASHA) annual conference. San Diego, CA.

차. 기관이 저자인 경우:

- (1) 국문 : 기관명을 저자로 명기(발행년도). 단행본명. 발행도시명: 기관명에 준하여 “동부”, “동 협회”, “동 학회” 등으로 표기.
 예: 문화관광부(1999). 교과서의 어휘 분석연구 - 초등학교 교과서를 대상으로. 서울: 동부.
 (2) 영문 : 단행본명을 이탤릭체로 표기. 발행처가 저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발행 도시명: 을 적은 후에 “Author”라고 표기.
 예: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2001).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5th ed.). Washington, DC: Author.

6. 표, 그림 및 부록

- 가. 표, 그림 및 부록에는 일련번호를 각각 붙이되, < >를 사용한다. 표와 그림은 본문 안에 삽입하고 부록은 참고문헌 뒤에 삽입한다.
 예: <표 1>, <그림 1>
 나. 표 및 부록의 제목은 상단 왼쪽에, 그림의 제목은 하단 중앙에 붙인다.
 다. 표, 그림 및 부록을 다른 문헌에서 인용하였을 때, 표와 부록의 경우에는 하단 왼

쪽에, 그림의 경우에는 하단 중앙 제목 밑에 출처를 명기한다.

라. 부호를 사용할 때의 글씨체 및 띄어쓰기는 다음과 같다.

- (1) p, F, t는 신명조체의 이탤릭체로 쓴다. 단, M, N, SD는 신명조체의 정자체로 한다.
- (2) 부호 사이는 반 칸 띄어 쓴다(예: $p<.001$, $F(1,129)=2.71$, $t=4.52$).
- (3) *는 윗 첨자의 형태로 통계표 안의 t값과 표 밑의 p값을 제시할 때 쓴다.
(예: *t, * $p<.05$)

마. 유의확률을 나타내는 p값은 표 하단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기재한다. (예: $p=.003$)

7. 초록

가. 한글 논문의 경우

- (1) 한글초록: 10줄 이내의 한 문단으로 된 한글초록(연구목적, 방법, 결과 등 포함)을 별지에 작성하여 논문 맨 앞에 첨부한다.
- (2) 영문초록: 10줄 내외의 영문초록을 별지에 작성하여 논문 맨 뒤에 첨부한다.
- (3) 핵심어: 3-5개의 핵심어를 한글초록과 영문초록 밑에 쓴다.

나. 영문 논문의 경우

- (1) 영문초록: 10줄 이내의 한 문단으로 된 영문초록(연구목적, 방법, 결과 등 포함)을 별지에 작성하여 논문 맨 앞에 첨부한다.
- (2) 한글초록: 1쪽 이내의 한글초록(한글제목, 한글이름, 한글소속 포함)을 별지에 작성하여 논문 맨 뒤에 첨부한다.
- (3) Key Words: 3-5개의 핵심어를 영문초록과 한글초록 밑에 쓴다.

〈별첨 4〉

한국통합치료학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통합치료학회(The Korean Society of Interdisciplinary Therapy)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음악, 언어, 놀이, 가족, 상담심리, 예술심리의 이론과 실재를 연구함으로써 한국 치료학의 발전 및 회원의 학문적 성장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 (위치) 본 학회의 사무소는 당해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업) 본 학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 및 발표
2. 심리적, 신체적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및 연구 활동
3. 학술지 발간
4. 학회발전을 위한 교육
5. 국내외 학회와의 유대
6. 회원의 권익보호 및 친목
7.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심리치료, 놀이치료, 언어치료, 음악치료, 가족 치료, 예술심리치료 또는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구분) 본 학회의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 평생회원, 일반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준회원은 5조에 관련된 전공의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경력 1년 이상인 자 또는 관련 전공 석사과정 중인 자로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학회가 제시한 일정한 구비요건을 충족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 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정회원은 5조에 관련된 전공의 석사학위 소유자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학회가 제시한 일정한 구비요건을 충족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 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3. 평생회원은 5조에 관련된 전공의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학회가 제시한 일정한 구비요건을 충족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 하여 자격관리 위원회의 심사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4. 기관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으로서 정회원이 운영 재직하는 기관 및 치료전문기관으로서 본 회의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기관으로 한다.

제7조 (입회 절차) 본 학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 원서 제출과 함께 입회비를 납부하고 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의 의결에 참여할 권리
2. 임원의 피선거권을 가질 권리
3.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권리
4. 본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
5. 본 학회의 각종 출판물을 받을 권리
6. 기타 학회에서 인정한 권리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참석 및 회칙을 준수할 의무
2. 본 학회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
3. 본 학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4.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10조 (회원의 탈퇴) 본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의 제명)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으로써 학회의 회장이 제명한다.

제12조 (회원의 자격 정지) 2년 이상(당해 연도 제외) 회비가 체납된 회원은 체납회비가 완납될 때까지 회원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다.

제3장 임 원

제13조 (임 원)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1명
3. 총무 : 1명
4. 감사 : 2명
5. 학술위원장 : 1명
6. 학제 간 연구위원장 : 1명
7. 편집위원장 : 1명
8. 국제교류위원장 : 1명
9. 윤리위원장 : 1명
10. 홍보위원장 : 1명

제14조 (임원의 임기)

1. 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기타 임원의 결원이 발생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한다.
3.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선출)

1. 회장과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무기명투표로 하여 출석 회원의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2.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총회에서 위임한 업무를 관장하며 학회를 책임 운영한다.
4. 각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직무를 수행한다.

제17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총회에 보고하는 일

제4장 기 구

제18조 (기구의 종류)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총 회
2. 운영위원회
3. 상임위원회

제19조 (총회)

1. 총회는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 1)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및 예·결산의 보고
 - 4) 규약 및 제 규정에서 총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는 주요안건
2. 총회는 그 기능의 일부를 총회 의결을 통하여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학술위원장, 학제 간 연구위원장, 편집위원장, 국제교류위원장, 윤리위원장, 홍보위원장으로 구성 한다.
2.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행한다.
 - 1) 회장과 감사를 총회에 추천한다.
 - 2) 준회원, 정회원, 평생회원, 기관회원의 자격을 심사 및 승인한다.
 - 3) 각종 규정 및 지도감독을 한다.
 - 4) 중요사업을 계획, 심의한다.
 - 5) 정관의 개정을 총회에 건의한다.
 - 6) 본 학회의 운영을 총괄 조정한다.
 - 7) 기타 중요사항을 결정한다.
3.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4. 기타 운영위원회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5. 제 20조의 모든 사항은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단,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정족수에 포함한다.

제21조 (상임위원회)

1. 편집위원회
 -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 학술지 발간 및 학술발표, 세미나 등 주관 및 교육
2. 국제교류위원회
 -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 국제 교류 및 협력 주관 및 관리
3. 학제 간 연구 위원회
 -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 음악, 언어, 놀이, 가족, 상담심리 등의 다양한 치료분야간의 통합치료모델 연구
4. 홍보위원회
 -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 대외협력 및 홍보

5. 학술위원회

-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 학술발표, 세미나, 교육특강 등 주관 및 교육

제5장 회 의

제22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갖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총회에서 투표권은 정회원, 평생회원에게 있다.

제23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정회원, 평생회원의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최한다.
※ 단,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정족수에 포함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 평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4조 (총회의 특례)

1. 회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운영위원회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5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신과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6장 재 정

제26조 (재정)

1. 본 학회의 재정은 회비, 학회운영 수익, 및 기타 찬조비 등으로 충당한다.
2. 회원 자격별 회비(입회비, 연회비, 및 평생회비 등)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본 학회 회원으로서 2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의 자격은 회비 납부시 까지 정지되며, 미납회비(당해 연도를 포함한 3년분 미납 연회비)의 납부와 동시에 회원 자격이 회복된다.
4. 평생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연회비가 면제된다.
5. 본 학회 재정의 모든 입출금은 본 학회가 보유한 은행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다.

제27조 (회계년도) 학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본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2. 본 정관은 2015년 3월 23일부로 시행한다.
3. 본 개정은 2017년 3월 23일부로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 선우현(명지대학교)
편집위원 : 노남숙(명지대학교)
최예린(명지대학교)
손보영(선문대학교)
이아라(경상대학교)
이상진(평택대학교)
박춘성(상지영서대학교)
박정환(제주대학교)
서근원(대구카톨릭대학교)
임지숙(명지대학교)

통합치료연구

제11권 제1호

2019년 8월 25일 인쇄

2019년 8월 25일 발행

발행인: 홍혜영 (한국통합치료학회)

(우) 03674

서울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경상관 4715호

Tel: 02-300-0899

E-mail: ksit@naver.com / ksit_journal@naver.com

인쇄처: 동문사

이 학회지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통합치료학회의 사전 서면 허락없이 복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